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00-000309-10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2018 – 2019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2018 – 2019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목차

취임사 08
2019 한눈에 보는 충남도정 성과 16
2019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18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함께' 만들어갑니다 22
출산 친화적인 충남 만들기, 금융권 동참 24
3대 무상교육 확대, 아이 키우기 더 좋게 27
통합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일 · 생활 균형 위해 노력 30
함께 만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33
출산 친화적 모범도시, 반드시 만들 것 37
저출산 극복 의지 천명 40
한마음으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위해 나서다 44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평생 배움은 행복한 삶의 바탕 48
어르신이 행복해야 충남이 행복 52
더 깨끗하고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어갈 것 55
노인학대 비극 예방위해 최선 다할 것 58
75세 이상 교통비 부담 덜어 더 행복하게 61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 더 잘 모실 것 64
노인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어르신이 함께 나서달라 67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여성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 기반 다질 것 74
장애인 체육인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충남 76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업그레이드 79
충남형 주거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81
남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희망 83
소상공인의 어려움 덜어내도록 적극 지원 86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위해 지혜 모으자 89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 확대할 것 93
성장 · 분배 이루고 삶의 질 높여 양극화 해소 96
3대 위기 극복과 더 행복한 충남의 마중물 기대 99
농어업 문제 해결 선행조건은 안정적 소득 보장 104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민선 7기 충남 경제정책 이정표 세우다 108
소상공인 경쟁력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 113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도약의 기회 만들자 118
충남이 벤처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될 것 121
사회적경제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124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선도적인 모델 만들자 127
자주국방 기반을 다지고 국방산업 미래 함께 만들 것 133
창업기업의 날갯짓 돕는 든든한 동반자 약속 136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4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출구 142
4차산업으로 혁신성장, 남북관계에서 기회를 146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기회를 만들자 149
균형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추진 152
해양신산업, 미래 혁신성장의 중심축 155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핵심 거점 내포신도시 164
디스플레이산업의 새로운 미래 견인 167
지역 에너지 여건 활용해 수소산업 선도할 것 169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충청 선현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 계승 176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는 충청유교문화 부흥 약속 178
행복과 품격 수준 높이는 건축과 공공디자인 181
찬란한 백제문화,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 콘텐츠로! 184
삼일운동 정신으로 일구는 '금강의 기적' 188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과 재조명에 앞장서겠다 192
삼일운동 100주년, 그 정신을 더 새롭게 승화하자 196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청정연료 전환, 내포신도시와 충남의 새로운 시작 20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정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 202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으로 바다를 지킬 것 205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0만톤 감축 목표 209
환경교육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삶터 가꾸자 214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16
도민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환경정책의 생산소비자 22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넘어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224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은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생존전략 230
가능성의 바다, 희망과 풍요의 바다 만들자 234
위풍당당 농촌지도자! 더 행복한 충남농업! 237
충남 혁신도시는 균형발전과 성장의 원동력 240
'밀원수 으뜸 충남' 건설 위해 지혜 모으자 243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 · 어항 만들자 245
농어업을 대한민국 핵심과제로 삼고 힘을 모아야 한다 248
산림정책 미래는 곧 도민 삶의 질 향상 252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분단의 고통을 끊고 진정한 광복으로 나아가자 258
취임 100일, 민선 7기 주춧돌 놓다 265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만들자 275
독립운동의 마음으로 사회 위기를 극복하자 283
지난 1년,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새로운 도전 288
일본의 경제도발을 우리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 삼자 299
환황해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혜 모으자 301
새로운 미래를 더 견고하게 준비할 것 307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

도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갑니다!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
대한민국 중심 충남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함께 자신 있고
당당하게 희망찬 미래로 나갑시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38대 충남도지사로 취임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막중한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라는 준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자랑스러운 충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큰 변화와 역동적인 도약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엄숙히 받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7년 수출액 5,735억 달러로 세계 6위, GDP 세계 11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1인당 GNP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고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어르신, 힘없는 서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절박한 위기를 말씀드리고 이를 극복할 특단의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미 맞닥뜨린, 미래 희망마저 꺾고 있는 첫 번째 위기는 저출산의 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과거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이 넘었고 출산율은 4.53명에 달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01년, 출생아는 55만 명으로 급락했고, 출산율은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현재, 출생아는 357,800여명, 출산율은 1.05명으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2,468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500년이면 33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노인인구가 366,000명으로 고령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6년, 충남연구원은 현재의 고령화 추세라면,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내 자연마을이 351개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48%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 OECD 1위는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르신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키운 어르신들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각하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또 다른 과제는 사회 양극화의 위기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악의 소득 양극화 국가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이 1,271만 원인데 비하여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은 84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민행복도 국민통합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편안한 삶과 주거복지를 높여 아이 키우는 가족의 교육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을 서둘러 시행하겠습니다. 직장 연합 어린이집 설립 지원 등 보육지원과 유아교육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청년과 신혼가정을 위한 사회적 주택 5,000호를 공급하여 편안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무료로 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활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해 매일이 즐거운 어르신들의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의 필수 요건입니다. 빈곤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용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 주택 1만5000호를 건설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불편 없는 장애인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문화 교류와 다문화축제를 지원하고 글로벌하우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함께하는 다문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극복해 '낙오자 없는 충남'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의 도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른 실천으로 뒷받침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은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도민 모두가 기회와 희망을 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또 다른 복지입니다.

미래성장을 책임질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쳐, 청년이 일할 곳 많은 충남,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금 불어오는 한반도 평화의 열망을 모아 우리 충남이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하는 등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새로운 희망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농업, 어업, 임업을 살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각 시 · 군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자립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늘과 땅, 바다를 아우르는 입체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충남도정을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정, 늘 소통하는 도정을 이끌겠습니다. 깨끗한 도정 운영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도정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저와 충남도청의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운영의 주체인 공직자가 자부심

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남 여성회관을 설립하여 선도적 여성정책의 산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 · 예술 · 체육활동을 통해 여유와 활기를 찾고, 지역의 소중한 역사 · 문화유산의 가치를 만끽하도록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숫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폐허를 극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의 저력을 살리고 도민과 국민이 함께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하고 위대한 충청남도, 대한민국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정치 여정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 해왔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충남을 더 키우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 큰 용기를 내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 도민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문화공연이나 시설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터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도민 여러분과 저
그리고 공직자가 함께 이끌어 가는 참여도정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 대한민국 중심 충남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함께 자신 있고 당당하게 희망찬 미래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 7. 2.
'제38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취임사

2019 한눈에 보는 충남도정 성과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 위 달성

2018,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

2 등급

광역단위 전국 2위



정부예산 확보

7 조 원 시대 개막



7조 1,481억 원

2019년 6조 3,863억 원 대비 11.9% 증가

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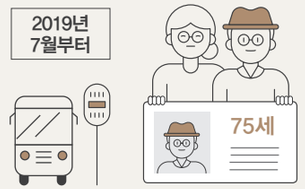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

51개 기관으로 취업기회 확대 **2**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이용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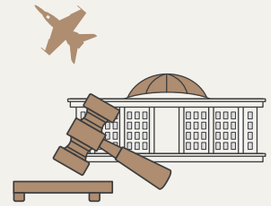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충청남도 전국 처음 실시 선도시책



5개 시 · 군 약 36만여 명 수혜 군소음법 국회 통과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3등급 → **1**등급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체결



사상최대 투자협약

13.1 조 원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2020년 12월말



해양신산업육성 기반확립



해양바이오,
해양생태복원(역간척),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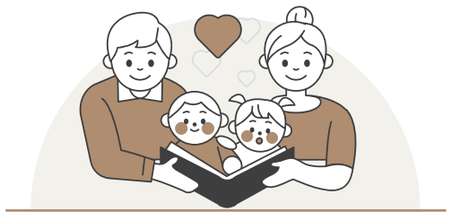
전국 최초 장애인 · 비장애인 여자 태권도팀 창단,
시각장애인 남녀 골볼팀 창단
(2019. 1)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율 상위권(전국3위) 유지



국내기업 : **692개사 3조 6,746억 원**
글로벌 외투기업 : **15개사 9억 2,200만 불**

2019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위한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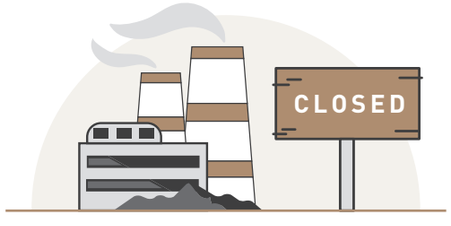
- 행복키움 수당(舊 아기수당) 확대(월 10만 원, 12개월 이하 → 24개월), 충남 아이키움뜰(전국 최초 24시간 전담 보육기관) 운영, 임산부 우대적금 도입, 부모부담보육료 지방비 지원,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15개소) 등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형 해양신산업 전략 마련

-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을 대내외 천명('19. 10. 10, 대통령 경제투어 방문 시)

→ 해양신산업 4대 전략(해양바이오 · 생태복원(역간척) · 치유 · 레저관광) 사업 본격 착수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보령화력1 · 2호기 2년 앞당겨 2020년말 폐쇄 확정!

- TF(전문가 · 시민사회) 및 범도민대책위 구성(道 327개 단체 대표자) 등 민관협치 거버넌스,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 노력 추진

→ 탈석탄을 통한 도민의 건강권 · 환경권 수호를 위한 큰 결실



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 농 · 어촌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맞춤형 응급처치, 안정적인 이송, 귀가 등 안심 구급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19.8) 및 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동상('19.11)



2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UNESCO World Heritage) 등재

2018년 공주 마곡사에 이어, 2019년 논산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국제기구가 인정한 최고의 유산으로 도민 자긍심 제고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서훈등급 상향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결의문 채택, 대정부 건의, 100만인 서명운동 등 도민과 함께한 노력이 이어져, 대한민국장(1등급)에 추서



충남혁신도시 지정 법안 통과 (산업통상자원위 법안 소위)

- 충남도정 최초 100만인 서명 달성 → 중앙정부 및 국회에 도민의 뜻 전달
-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첫 관문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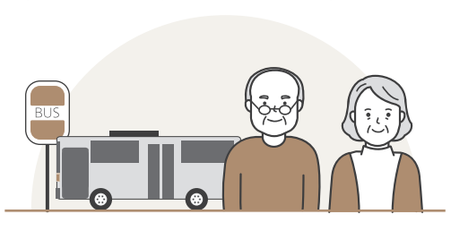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충청남도!

- 도, 시 · 군 공동 노력으로 "합동평가 역사상 최초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 국가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총 35억 원 확보 (2018년 21억 원, 2019년 14.09억 원)



숨쉬기 좋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충청남도가 앞서 나아가다

-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실적 초과달성,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언, 청정연료 전환협약(30개 기업) 등 친환경 선도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행

- 대도시권과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어르신들의 여가 · 병원진료 등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총 185천명 중 138천명 신청, 137천명 교통카드 발급, 5,310천 건 이용 중('19.11월말)



01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모두가 행복할 때 우리 아이도 밝게 자랍니다

축복받으며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청남도는 해야 할 일을 찾고 열심히 실행합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함께’ 만들어갑니다

2018. 7. 19.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교육협력 업무협약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고자 충남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의장, 김지철 교육감은 2018년 7월 19일 예산 덕산고등학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은 혁신교육 2기에 돌입한 김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3대 무상교육과 충남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협력사업의 기획과 지원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협약식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 32만 명,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취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힘을 합치는 소중한 약속과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을 서둘러 시행하겠습니다. 직장연합 어린이집 설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고,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망원인 1등이 자살이라는 것은 기성세대에게 정말 큰 부끄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아무리 잘한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뜻깊은 협약에 함께해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과 유병국 도의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출산 친화적인 충남 만들기, 금융권 동참

2018. 7. 20.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와 금융기관이 손을 잡았다. 도는 2018년 7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서 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본부는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개발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을 보태주신 NH농협은행 원종찬 충남영업본부장님과 하나은행 민인홍 충청영업그룹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대변자로서, 또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의 대표적 민간금융기관으로서 우리 도와 각종 지역협력사업을 펼쳐오셨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오늘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은 양 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더욱 높이는 매우 뜻깊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도의 합계출산율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인 1.0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OECD 평균 1.68명과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도부터 줄고 있습니다. 일 예로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교사 채용축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출산친화적인 충남을 만들기 위해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우대금리 제공 등을 먼저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저는 출산친화적인 충남을 만들고자 취임 후 가장 먼저 임산부전용 민원창구 개설 계획을 결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전용 민원창구가 빠르게 설치 ·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고 소소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충남이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충남의 미래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실현할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더 행복한 충남,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는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소규모 직장 연합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전국적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연 충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뜻을 모으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이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 충남에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대 무상교육 확대, 아이 키우기 더 좋게!

2018. 9. 19.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

양승조 지사,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2018년 9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와 교육청은 3대 무상교육과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3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맞닥뜨린 위기이자 미래의 희망마저 꺾는 위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 출산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려 수준을 넘어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일이며, 이의 극복 없이는 우리의 미래 또한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에 모든 관심과 역량을 모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도가 교육청과 손잡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19일 예산 덕산고등학교에서 김지철 교육감님,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실천사항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 평등권 보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지원 정책 추진,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지원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부모는 한 달에 1만 원 밖에 부담하지 않는데 반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둔 부모는 월 2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정말 불평등한 일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든 공립유치원에 다니든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육비 차액지원은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도지사가 관할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에게도 사립유치원 원아들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 지원을 2020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8월 국가 차원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연계하여 재원 확충을 위해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고교 무상을 선도하는 우리 도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통합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일·생활 균형 위해 노력

2018. 12. 3.

홍성군
아동통합지원센터
개소식

2018년 12월 3일 홍성군에 전국 처음으로 통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방과후돌봄센터, 급식소, 청소년 동아리방, 작은도서관, 독서실, 가족카페 등 7개 시설이 있어 영 · 유아부터 초등학생, 청소년, 가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홍성군 아동통합 지원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육아의 어려움은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시급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난 데 비해 그 공급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곳곳에 흩어져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용의 불편함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부모 중 한 명, 특히 여성이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고용조사에 따르면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184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000명(0.8%)이나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노동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오기까지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가 방과 후에 가정이든 마을이든 학교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2016년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은 초등학생은 267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 명 중 33만 명으로 1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수가 46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홀로 방치되거나 안전하지 못한 돌봄여건에 놓인 아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저는 도지사로 취임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는 저의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현재 4개소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10개소 이상 더 만들겠습니다. 학교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온종일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미 도내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에 2,772개 임산부 전용창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를 위한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시책으로 16개 기관 169명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정 기조에 발맞춰 통합적 아동돌봄체계 구축과 일 · 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더 촘촘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2018. 12. 26.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부모와의 토크
콘서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민선 7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충청남도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부모 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 12월 26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부모와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주택,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면 아이, 직장이면 직장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아이들을 더욱 잘 키우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2002년 출생아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 출생아 수도 2017년 15,67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28명에 머물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렀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공동체의 붕괴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출생률이나 출생아 수와 같은 수치 중심의 목표를 넘어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화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후 첫 번째 결재가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였습니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과 병원, 은행 등 2,773개 시설에서 임산부 여러분이 대기시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농협, 하나은행과 함께 임산부 우대금리상품도 출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134분께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내년에는 지역농협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달부터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 · 면 지역의 임산부는 출산일이나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에 119 구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전국 처음으로 12개월 이하 모든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도지사 관사 활용 24시간 어린이집 설치 등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매년 2개소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존의 시설과도 연계해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주거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도 자체적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낮은 임대료, 더 넓은 주거 공간, 더 좋은 육아 맞춤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1,000호까지 추가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 프라자와 같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육아 관련 사회서비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의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복지 수준을 높이면서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출산과 양육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 주거와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와 구조를 우리 충남에 모범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친화적 모범도시, 반드시 만들 것

2019. 3. 14.

두근두근 임신육아
자선 콘서트

2019년 3월 14일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아트홀에서 '두근두근 임신 · 육아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들무새봉사단이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연 이날 행사에는 양 지사와 천안 · 아산지역 임산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출산과 양육, 주거와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와 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이와 엄마 아빠, 행복한 지역과 나라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콘서트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신'과 '육아'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응원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완철 들무새봉사단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담은 이야기와 사랑을 담은 음악 속에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2002년 출생아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지난해 우리 도 출생아 수는 14,40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혼 추세와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많은 분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 임신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산후우울증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를 통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에 도지사 취임 후 철 결재였던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2,77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은행과 협력해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출시하여 지난 7개월간 359명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올해에는 지역농협 등 협약기관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 · 면지역의 임산부에게 출산일이나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에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난임부부 의료지원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충남도 역대 최고인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양육여건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도는 2018년 11월, 「충남아기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출산과 양육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충청남도가 우리 사회 각 주체와 함께 출산과 양육, 주거와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와 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공, 8세 미만 자녀 양육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등 충남도청이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행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들무새봉사단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저출산 극복 의지 천명

2019. 4. 23.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도는 2019년 4월 2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도교육청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는 2019년을 도내 시 · 군의 저출산 극복 의지 확산 원년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안팎에 알리고, 도와 도교 육청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아갈 10대 역점 협력과제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자 학생으로서, 또 부모이자 직장인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최대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언하는 매우 뜻깊은 다짐의 날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자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세계에게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혼인율과 출산율 등 수치에 의해 평가되던 저출산 정책들이 이제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일과 생활의 균형, 포용, 양성평등, 그리고 지속가능성까지 삶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가치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열 가지 협력과제에는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2019년 3월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비롯해 충남도와 교육청, 나아가 사회의 각 부문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온종일 초등돌봄 협력체계 구축은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영유아와는 달리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전체의 54.5%에 달하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하교 이후에 홀로 방치되거나 안전하지 못한 돌봄 여건에 놓인 아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교육청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 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저녁형 초등돌봄센터 1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안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2022년까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역 내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1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돌봄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우리 도가 먼저 시행해 온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하기', 소규모 사업장 연합 직장 어린이 집 설치, 공공형 시간제 어린이집 확충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양육과 교육, 청년 취업과 주거, 가족가치관 등이 뒤엉킨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충남이 넓고 긴 안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한마음으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위해 나서다

2019. 11. 27.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 살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사고를 막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도와 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2019년 11월 27일 충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제안으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진행했다. 선언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자는 데 합의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서 도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7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의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 아산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과속 사망사고의 경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당정은 어제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 · 유찬이법’ 등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현장 차원의 노력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변화는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선언을 통해 각 기관과 함께 혼신을 다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 더 세심하게 챙기고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행복한 노후를 충청남도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평생 배움은 행복한 삶의 바탕

2018. 9. 7.

제3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

양승조 지사가 2018년 9월 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900여명의 문해교육 학습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도내 24개 문해교육 기관 · 단체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문해교육 학습자가 배움을 통해 얻은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양 지사는 평생교육 확산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활문해까지 확대해 도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문해교육 학습자들에 대한 격려와 작품 전시, 학습발표회 등을 통한 문해교육 확산을 위해 제3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문해교육 학습자와 문해교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 여러분과, 문해교육 유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문해교육 시화전에 출품하여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해교육 학습자 여러분!
유네스코(UNESCO)는 매년 9월 8일을 문해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9월을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는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를 올해로 3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는 유년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문해교육 학습자분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하고 기쁨을 나누며 문해교육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예전에는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이 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배움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토록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오늘날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확산을 통해 소득격차와 교육 불평등과 같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문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20세 이상 국민의 13.1%에 달하는 517만 명이 잠재적인 문해교육 수요자입니다. 우리 도에도 비문해자가 20.7%에 달하며 3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26.5%)과 경북(2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초문해뿐만 아니라 생활문해 분야까지 확대하여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문해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롭게 문해교육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배움을 향한 열정에 큰 박수를 드리며, 오늘 제3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OREA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어르신이 행복해야 충남이 행복

2019. 3. 7.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노인복지정책 간담회

양승조 지사는 2019년 3월 7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노인회 충남도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간담회에서 양 지사는 고령화 문제가 저출산, 양극화 문제와 함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과제라며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제도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올해 들어 신년교례회 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첫 만남에서 함께 하지 못한 따뜻한 식사를 모시고 싶어 이렇게 도청에서 인사드리게 되었 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한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와 함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노인 인구는 전체 도민의 17.5%인 37만 2,000명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해야 우리 지역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르신이 특별한 여가문화 활동 없이 집에서 단순히 TV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2017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된 여가활동은 단순 휴식(TV 시청)이 99.3%에 달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 참여율은 12.9%에 불과하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참여율도 높아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서도 경제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뒷받침할 제도나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새로이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년 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에서 56세로 은퇴 이후 단순 휴식만 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높이고, 예비노년세대가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대와 60대 예비노년세대의 제2 인생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취업 훈련 및 알선,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건강 및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스스로가 여가생활이나 건강 등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어르신들이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주신 노인회 지도자들께서 더욱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만남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인회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어갈 것

2019. 6. 5.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현판식

충청남도는 2019년 6월 5일 보령시에 있는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에서 새 명칭 사용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기존 생생꿈마을요양원에서 도립 요양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현판식에서 양승조 지사와 참석자들은 현판식 이후 요양원 활동 프로그램인 팔찌 만들기에서 직접 만든 팔찌를 입소 노인에게 선물하고, 요양원을 둘러보며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새롭게 도립요양원 현판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노인요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충남도립요양원이 도립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로서 더 새롭게 발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2019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77만 명으로 고령화율 15.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노인인구는 37만 7,000명으로 고령화율이 1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과 아산, 서산, 계룡, 당진을 제외한 10개 시 · 군은 고령화율이 이미 28%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고령화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바로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이신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어르신들게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다 함께 나서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립요양원 현판식은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우리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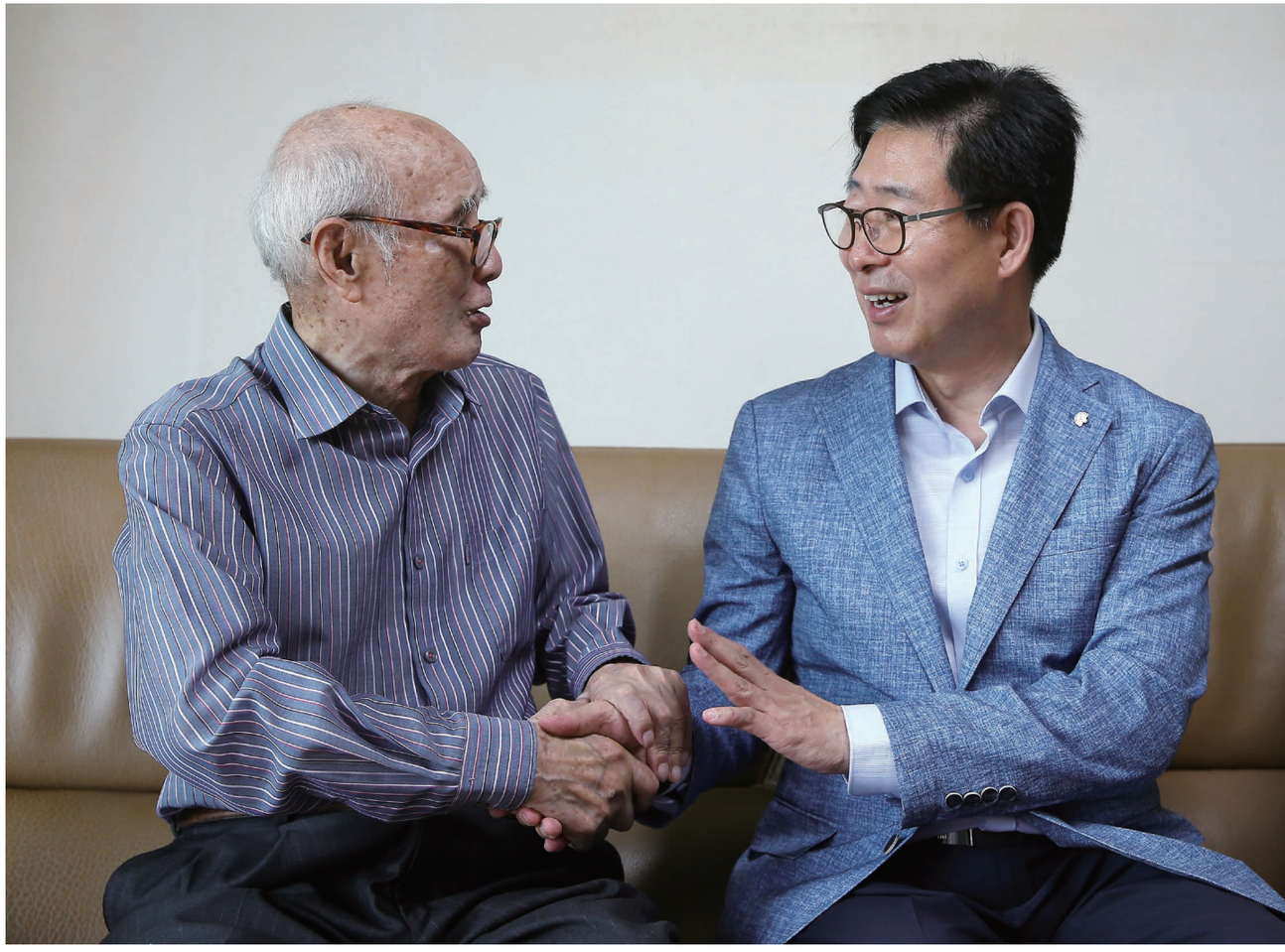
함께해주신 여러분,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어르신이 57.6%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공동생활시설 등을 전국에 걸쳐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청양, 예산군이 참여 선정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어르신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처우개선과 단합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종사자들이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거나, 성희롱과 인격침해 등을 겪지 않도록 권익보호에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요양시설을 위해 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증·개축과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께서도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여러분께 더 큰 관심과 나눔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현판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노인학대 비극 예방위해 최선 다할 것

2019. 6. 10.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충청남도는 2019년 6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 기념식은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다짐하고, 노인 인권의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는 노인학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복합적인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인인권 증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대한 우리의 존경이 더욱 자라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범국민적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4,280건이었던 전국 학대 피해는 2017년 4,6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 역시 2016년 195건, 2017년 211건, 2018년 25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학대행위 대부분이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자 스스로가 은폐하려는 경향이 높아, 재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노인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자녀가 145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51건(20%),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15건(5.9%)이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성과 경로효친사상 약화, 장기간에 걸친 가족관계 단절 등에 대한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저와 충청남도가 가장 앞자리에 서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홀로 계시지 않도록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선도적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인권 증진에 특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와 예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노인학대 예방 도민참여단과 같은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높여 노인학대 신고 강화는 물론이고 예방캠페인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돌봄서비스와 안전망도 더욱 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노인학대 예방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주체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거듭 가슴에 새기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5세 이상 교통비 부담 덜어 더 행복하게

2019. 7. 1.
충남형 교통카드
사용 개시 행사

충청남도는 2019년 7월 1일 홍성종합터미널에서 7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충남형 교통카드' 사용 개시 행사를 열었다.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승차할 때 단말 장치에 대면 횟수에 제한 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19년 5월 15개 시 · 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오늘,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도시권과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충남형 교통카드 정책을 개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을 계기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충남의 75세 이상 어르신 18만 5,000여명은 시 · 군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께서도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충남지방정부회의 등을 통해 충남도와 15개 시 · 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뒷받침할 소중한 정책에 함께해주신 시장 · 군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정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여러 대도시권과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 비교할 때 우리 충남 각지의 어르신들이 큰 차별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남의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여가생활과 다양한 경제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전 시 · 군은 교통복지 증진에 더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자살취약군 1:1 멘토링제도 등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높이는 데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과 여가활동 및 평생학습 활성화,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신체, 인지능력 검사를 확대하여 안전운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높이는 데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주요 내빈과 홍성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 더 잘 모실 것

2019. 10. 25.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0월 25일 경로의 달을 맞아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며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 일자리 제공 등 노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제23회 충청남도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경로효친사상이 더 깊어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이 한층 커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전쟁과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일궈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어르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긴 세월 쌓아 올린 어르신들의 역사를 존경하며 우리 후배들이 그 자랑 스러운 역사를 이어받고, 어르신 여러분을 더욱 잘 모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노인 인구는 38만 3천명으로 고령화율이 18%에 달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어르신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공경받는 지역이 되도록 힘쓰겠 습니다. 이미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버스 무료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18만 5천 어르신들이 15개 시 · 군의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며 교통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무엇보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일자리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2회 추경을 통해 72억 원을 증액해 1,5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 전년보다 5천여 일자리를 늘려 총 30,174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정책을 잘 챙기면서 좋은 일자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사회안전망도 더욱 챙기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과 시설 모두에서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노인복지 정책의 입안과 실현의 주체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을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어르신이 함께 나서달라

2019. 11. 4.

제6회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1월 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6회 충남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노인 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노인복지 종사자와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됐다. 양 지사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는 필수이고, 도는 어르신의 일할 기회 마련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충남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화합의 장을 펼쳐나갈 '제6회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대회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 여러분을 향한 존경이 한층 더 커지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의 날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도내 16개 노인 복지관에서 함께 배우고 익힌 춤과 노래, 악기연주 등을 마음껏 발산하고 나누시는 흥겨운 축제의 장입니다. 여기 함께해주신 어르신들께서는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진정한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이제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여가활동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대다수는 아직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TV 시청 등 휴식 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노년기 가장 무서운 것은 무기력증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 도내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62.6명에 달합니다. 이는 17개 광역시 · 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닌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은 건강증진과 우울증 해소 등 건강한 노후의 필수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십니다. 우리 도내의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어르신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우리 충남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더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주역이신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홀로 계시지 않도록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향한 선도적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인권 증진에 특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 대한 보호와 예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 여러분께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사업 참여 민간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래교실 등을 통해 문화와 건강을 향유할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으로 약속드린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 18만 5,057분께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02.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노인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6회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함께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3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더불어 잘사는 충남

빈틈없는 촘촘한 복지로 함께 웃는 충남을 만들어갑니다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복지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여성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 기반 다질 것

2019. 1. 25.

충남도청
여자태권도팀
창단식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자 태권도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탄생했다. 충청남도는 2019년 1월 25일 도청에서 '충남도청 여자 태권도팀 창단식'을 진행했다. 태권도팀은 감독 1명과 장애선수 2명, 비장애선수 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청 여자 태권도팀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권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기(國伎)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한 체육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청 여자 태권도팀 창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통해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만드는 데 기꺼이 그 뜻을 함께해주신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도청 여자태권도팀이 '스포츠는 복지'라는 기치와 220만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태권도는 자랑스러운 전통무술이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을 위해 태권도를 국기(國伎)로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를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태권도인 여러분과 힘을 합쳐 자랑스러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에 걸맞은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충남의 목표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을 통해 도민 누구나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태권도팀 창단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태권도팀은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하는 팀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같이 땀 흘리고 훈련하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태권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족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의 부흥을 이끌고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태권도를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여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여성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복지 기반을 더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창단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 태권도, 충남도청 여자태권도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장애인 체육인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충남

2019. 1. 31.
충남 시각장애인
남 · 여 골볼팀
창단식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남 · 여 골볼실업팀을 창단했다. 도는 2019년 1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시각장애인 남 · 여 골볼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 팀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다.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창단한 충남 골볼팀은 김진 감독과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4명 2개 팀 9명으로 구성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골볼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충남 시각장애인 남 · 녀 골볼팀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25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충남도청 여자태권도팀을 창단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남 · 여 골볼팀을 창단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뜻깊은 골볼팀 창단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더 행복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향해 한 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민선 7기 충남의 목표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을 통해 도민 누구나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성들여 모신 감독님과 남자 4명, 여자 4명의 선수와 함께 뜻깊은 창단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선수들은 실력과 인성에 이르기까지 전국 최고로 평가받는 분들입니다.

새롭게 창단한 골볼팀을 위해 커다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늘 함께해주신 선수단 가족들께도 힘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골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볼팀을 하루 속히 안정화시켜 최고의 원팀(One-Team)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우리 선수들에게 맞는 훈련시스템과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훈련장 인근에 골볼과 보치아 선수단 합숙소를 매입하여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체력측정과 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공모신청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의 처우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양성과 장애인 훈련장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골볼팀 창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볼팀 선수단 한분 한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충남 체육의 명예를 드높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실업팀 창단 붐이 일어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장애인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그동안 창단을 위해 힘써주신 도의회와 체육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업그레이드

2019. 2. 26.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2019년 2월 26일 출범했다. 감염병관리 지원단은 도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도청 본관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주요 임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 지원과 실행전략 마련, 감염병 발생 감시 · 분석 및 정보환류, 현장 역학조사 기술 지원 및 결과 보고서 검토 · 자문, 대응 요원 역량 강화,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 · 훈련 지원 등이다.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오늘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분야 민간전문 지원기구인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출범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출범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단국대학교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밤낮없이 책임을 다해주고 계신 15개 시 · 군 보건소장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타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전국은 메르스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8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67명, 서울 50명, 대전 24명에 이어 우리 도에도 16명이나 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발병 초기 국민들은 많은 불안에 떨었고 감염병 관리상의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전문적인 경험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국회 보건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복지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수준의 민간전문 감염병 지원조직을 광역 시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충남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권 최초로 출범한 우리 지원단이 220만 충남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지원단 설치를 계기로 도 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최종단계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홍역 감염사태에서 보듯 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홍역은 물론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하여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감염병 관계자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는 건강복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 보건환경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감염병관리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함께 모이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형 주거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2019. 5. 8.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식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에 제공한다. 도는 청년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사업에 아산시를 선정하여 배방 월천지구에 600호를 조성한다. 이에 도는 2019년 5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뜻깊은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히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는 저출산 문제가 지방은 물론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높은 주거비용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혼인과 출산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거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정책도 수도권에 집중되며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와 아산시,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통해 주거문제로 혼인과 출산을 주저하는 우리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꺼이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희망

2019. 7. 2.
제35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가 2019년 7월 2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35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열었다. 여성대회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풀뿌리 여성조직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도내 여성역량 결집을 위한 제35회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대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양성평등 신장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표창을 받으신 서른 세분의 수상자들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계기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더욱 힘차게 구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올해로 스물네 번째 양성평등 주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더욱 번영케 하고 지속가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명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 등 양성평등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등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x)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44개 국가 중 118위, 2018년에는 149개 국가 중 115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 충남의 사정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성격차지수를 보면 충남의 지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순위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산도 옮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양성평등 충남을 향해 계속 나아갑시다. 제가 가장 앞자리에 서서 존중과 배려의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의 미래, '더불어 잘사는 양성평등 충남'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양성평등을 향한 우리 충남의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께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추서되는 뜻깊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력단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통해 여성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의 토대를 만들고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성단체와 각 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여름에는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대회'를 우리 충남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한인여성들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뜻깊은 이번 대회를 맞으며 더불어 잘사는 양성평등 충남을 통해 새로운 공존의 미래를 만들 것을 다짐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의 어려움 덜어내도록 적극 지원

2019. 8. 8.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 간담회

충청남도는 2019년 8월 8일 도청 외부인사접견실에서 '충남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다. 1분기 사업지원을 받은 사업주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승조 지사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와 종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도가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해주고 계신 사업주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더 좋은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일과 삶은 220만 충남도민의 일과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 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13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도 257,000명에 달해 우리 도 전체 종사자 수의 36.2%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여러분은 충남 지역경제의 든든한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2017년부터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신규 채용을 막고 기존 인력을 축소 시키는 등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달리 어려움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는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변하기에 많은 분의 걱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살(Live) 맛나는 소상공인 살(Buy)맛나는 충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1분기 사업에 대하여 13개 시 · 군 3,951개 사업장의 11,366명의 근로자가 신청해주셨습니다. 이는 목표 인원의 약 95%에 달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시행착오 없는 효과적인 추진 덕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3대 보험공단과 함께 심사를 거쳐 최종 3,726개 사업장 9,732명의 근로자에게 총 24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충남 소상공인의 현황을 진단하고 2022년까지의 중기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 지역별 지원 추진전략과 과제, 핵심사업 발굴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복지강화, 경쟁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28개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창업-성장-퇴로-안전망 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비 1,000억 원과 시 · 군비 770억 등을 투입해 총 1,78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앞으로도 충청남도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더 행복한 충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 마음을 연 좋은 대화와 소중한 혜안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위해 지혜 모으자

2019. 9. 5.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충청남도는 2019년 9월 5일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정한 9월 7일을 기념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종사자 활동 장려를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복지 현장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주고 계신 충남의 모든 사회복지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스무 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우리 충남이 정한 민선 7기 도정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는 220만 도민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인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 구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초유의 일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 말 14.8%를 넘어섰고, 49.6%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는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의 희망마저 갉아먹고 있습니다. 금년 2분기 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132만 5,000원이었으나, 상위 20% 가구 소득은 942만 6,000원으로 하위 가구 소득의 7배가 넘었습니다.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충남에서부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에 당당히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도 전격 시행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을 개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행, 자살 취약군 어르신 1대1 멘토링 실시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개 시 · 군에 걸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홈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건물 BF인증도 확대하여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함께해주신 여러분!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노력과 함께 사회 복지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 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충청남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사의 절반이 넘는 59.7%가 이직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부족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된 이직 사유로 꼽혔습니다.
앞으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실태조사 등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의 이웃을 웃게 하고, 다시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치 않는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이웃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 확대할 것

2019. 10. 7.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식

충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일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기존 시 · 군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범위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도는 2019년 10월 7일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 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도 차원의 배차 관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시간 운행상황 관리와 이용요금 정산도 가능하게 됐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우리 지역 교통약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특별교통수단의 이동범위 광역 화를 위한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를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찾고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각 시 ·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동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의 교통약자 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차운영 등 효과적인 교통약자 정책 추진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 5,068명, 고령자 36만 2,946명, 임산부 1만 5,087명, 어린이 10만 2,946명, 영유아 동반자 9만 932명 등 총 63만 7,699명에 달하며 이는 충남 인구의 30.1%를 차지합니다.

특히, 충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충남 장애인의 외출시 교통수단 1순위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자가용이었고, 다음이 특별교통수단이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동수단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 · 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한정된 시 · 군 재원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차량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여러 제약이 많았습니다.

관외 지역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 · 군마다 이용대상자, 운행시간, 이용요금 등 기준이 달라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컸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광역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하도록 「교통약자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3년까지 교통약자가 연 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번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은 물론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과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건설에도 참으로 잘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앞으로 충청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도 차원의 배차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운행상황 관리와 이용요금 정산 등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를 도입 · 활용하여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 여러분이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성장·분배 이루고 삶의 질 높여 양극화 해소

2019. 10. 16.

양극화 대응
정책토론회

충청남도가 소득과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019년 10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양극화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가 추진 중인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조 지사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 분야를 넘어 모든 영역으로 확대 ·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도가 선도적으로 취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충남형 양극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 더 실질적으로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난 IMF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양극화의 문제는 경제 분야를 넘어 전 영역으로 확대 ·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3.3%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역대 2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득과 자산 등 경제 양극화는 다양한 영역으로 파생 · 확대됩니다. 소득수준과 고용 형태에 따른 기혼자의 비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30대 남성의 임금수준에 따른 기혼자 비율을 보면, 1분위가 6.9%, 10분위가 82.5%를 기록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0대 남성의 고용 형태에 따른 기혼자 비율 역시도 비정규직이 28.9%, 정규직이 53.1%를 기록하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합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기회와 동기를 빼앗고 맙니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과 교육을 통해 자식에게 대물림됨으로써 미래 희망마저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기준 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은 무려 65%에 달했습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역시도 40대 자영업자의 92.9%가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며 하위 계층일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없이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양극화 해소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제 · 사회적인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취할 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길 바랍니다.

물론 양극화 극복의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희망의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미 민선 7기 충청남도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도지사 한 사람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께서 커다란 사명감으로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대 위기 극복과 더 행복한 충남의 마중물 기대

2019. 11. 20.
재단법인
충남복지재단
출범식

충남의 복지정책을 연구 · 개발할 충남복지재단이 2019년 11월 20일 내포신도시 전문건설회관 5층에 둥지를 틀고 닻을 올렸다. 충남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은 저출산 · 고령화 시대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3대 위기 극복과 충남형 복지정책을 이끄는 전문 연구조직인 충남복지재단이 현장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20만 충남도민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도 복지수준 향상을 이끌어나갈 충남복지재단의 뜻깊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단 설립 추진 9년 만에 이룬 값진 결실이기에 더욱 기쁨이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복지재단 출범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민선 7기 충남도정의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는 도민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1971년 102만 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32만 6,900명으로 급감하였고,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도 2019년 10월말 기준 15.4%를 넘어섰고 우리 충남의 경우 18.1%에 달하고 있습니다.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과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의 문제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2분기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32만 5,000원이었으나 상위 20%의 가구 소득은 942만 6,000원으로 하위 가구 소득의 7배가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남녀와 노소,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 갈등하게 하는 3대 위기라는 분열의 원천을 시급히 극복해야만 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복지수요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보장의 불균형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도 단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복지정책은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그리고 우리 도의 자랑인 충남아기수당과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등과 같이 대상자 측면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한 생계문제 해결을 넘어 고용과 환경, 주거와 문화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체계를 이끌어나갈 충남복지재단의 출범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출범하는 충남복지재단이 현장과 행정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3대 위기 극복과 충남형 복지정책을 이끄는 전문 연구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저는 충남복지재단의 제1호 정책연구 과제로 최일선에서 도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이 힘을 받아야 도민이 힘을 얻습니다. 현장의 여러분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부족한 복리후생 제도 등을 도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시설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높아진 종사자의 자긍심이 도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게 만들겠습니다.

뜻깊은 충남복지재단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충남도가 상상하면 대한민국의 복지가 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농업인과 함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더 행복한 충남!

03.
더불어
잘사는 충남

농어업 문제 해결 선행조건은 안정적 소득 보장

2019. 12. 9.

농어민수당 관련
농업인단체 대표
간담회

충청남도는 2019년 12월 9일 접견실에서 도의회와 농어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수당 관련 농업인단체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농어업인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고자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는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어민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농어업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오고 계시듯 우리나라 농어업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농어업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역할, 즉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이를 증진 시키며, 나아가 농어업 ·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제가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도 역시도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와 어가, 임가를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농어민수당은 충남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우선 출발시킨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 · 군의 재정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농어민수당 지급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농어업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정부의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과 더불어 우리 도의 농어민 수당의 추진은 농어업 정책의 새로운 변화이자, 충남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저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니 충남 농어업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이 시간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고, 또 다양한 관점과 요구를 서로 경청하며 우리 충남 농어민의 행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4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기업하기 좋은 충남

쉼 없는 혁신과 협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힙니다

충남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세계가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주목하는 것은
잠재력과 기회, 그리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민선 7기 충남 경제정책 이정표 세우다

2018. 9. 4.

2018년 제1차
충남
경제발전전략위원회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 · 추진을 위한 2018년 제1차 충남경제발전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남경제발전전략은 '충남경제비전2030' 수립 이후 4차 산업혁명, 저출산 · 고령화 ·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환경 변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우리 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대한 민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2016년 기준 GRDP 117조 원으로 전국 3위, 1인당 GRDP 4,984만 원으로 전국 2위라는 지표는 이러한 충남의 경제적 위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기업 중심의 주력산업들이 수출중심의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충남은 외생변수에 매우 취약한 경제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주춤하면서 최근 3년 기준 우리도 GRDP 성장률이 3%대로 고착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과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은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3년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향후 5년 뒤에는 1년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충남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산업계는 물론 모두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 · 중 간 무역갈등이 점점 확산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30.2%나 차지하는 우리 도의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남 경제의 속사정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도는 제조업 비중이 55.9%로 전국 31.3%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생산측면인 GRDP는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생산된 부가가치가 도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GRDP의 23.5%, 즉 27조 2,000억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 많은 생산공장이 입지하여 외형상의 성장률은 높으나, 교육 · 문화 · 의료 등 정주여건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도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고 본사가 아닌 단순 생산공장 중심으로 입지함에 따라 지역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는 대규모 자본투자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트릴 수 있는 위기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출산 · 고령화, 사회 양극화가 위기가 양적 성장 중심으로 달려온 우리의 그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합계출생율이 1.0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971년 연간 출생아 수가 102만 명이었지만, 지난해는 35만7,800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는 32만 명이 추산되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2%에 달하며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본이 고령사회 진입에 2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16.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충남의 15개 시 · 군 가운데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을 제외한 10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위기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한 2018년 2/4분기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는 132만 5천 원에 불과하고, 상위 20%인 5분위는 913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1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가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득은 12.4%가 증가하여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계층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 즉 불균형 발전의 문제 역시 우리사회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천안과 아산, 당진과 서산 등 북부권이 충남GRDP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내 남부권은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충남의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 스스로가 원인을 진단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튼튼한 경제라는 토대 없이는 그 효과도 지속성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민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과 의료 · 의약 바이오산업, 농식품산업과 친환경에너지산업 등 미래유망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내 15개 시 · 군이 지역별로 특색 있게 성장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만들겠습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등 작은 경제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창의와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창의적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도의 경제진단과 연구방향, 추진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충남경제발전략 수립의 실질적인 주체이십니다. 오늘 자문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 10년 앞서 미리 준비하는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

2018. 9. 17.

소상공인
정책 타운홀 미팅

충청남도가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018년 9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119분께 듣습니다–충남 소상공인 정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민선 7기 소상공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맞춰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종합발전계획 설명, 우선 정책 추출 전자투표, 강연, 도지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와 소상공인이 함께 모여 앞으로 소상공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의견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들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2만 5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24만 2천명에 달해 우리 도 전체 종사자 수의 35.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2015년 기준 5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도 2016년에는 13.5%의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서



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사업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경감과 제로페이 조기 도입,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경영비용 부담 완화대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창업 · 재취업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과 범위 확대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장 소통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갈 추가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발전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내에 수립할 것입니다. 전문가회의와 시 · 군간담회,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SNS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지원체계 미흡, 온라인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복지강화, 1인 기업 등을 위한 도 자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도민 상생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복지 강화, 소상공인 애로 타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매력 향상,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과제로
첫째, 도내 소상공인들의 전담 애로해결과 밀착 지원을 위한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및 보부상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 사업정리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등 공적 공제가입 지원과 폐업 예정 업체에 대해 철거와 원상 복구, 홍보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생계형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동이 가능한 건강검진 버스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주간(소상공인의 날)을 운영해 선포식 개최, 공동 세일전 등을 실시함으로써 판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영노하우 공유 및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교육, 가업승계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발전계획 수립 외에도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자영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은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때 가능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충남경제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충남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눠주시길 기대하겠 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살아야 충남 경제가 삽니다. 힘내십시오! 충남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도약의 기회 만들자

2018. 12. 10.

자동차산업 위기
상황판단회의

충청남도는 2018년 12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위기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자동차 시장 위축에 따른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충남이 자동차산업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어려움도 크지만, 적극적인 위기대응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국내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위축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자동차부품 기업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상황을 듣고, 또 전문가들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도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적극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성장률을 2018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6%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 성장이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판매부진과 내수시장 정체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완성차업계에 기대고 있는 수많은 영세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과거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크나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 제조업에서 자동차산업의 매출 비중은 14%에 달합니다. 석유화학(21.1%)과 디스플레이(16.3%)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190개 자동차부품 업체에는 34,336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다른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아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0월말까지 328만대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2007년 국내생산 409만대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400만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지켜오던 자동차 생산국 5위라는 타이틀을 지난해 인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멕시코에도 밀려 7위로 뒤쳐질 것이 예상됩니다.
결국 완성차업계의 부진에 따라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품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IMF 이후 크게 고전하던 자동차산업이 효과적인 경영과 부품조달 시스템 개혁으로 다시 약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기를 맞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실행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우선 시급히 자동차산업 벨류 체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 위기대응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발맞춰 중장기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지켜만 보기보다 작은 대책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대응방안을 면밀히 고민한다면 보다 진전되고 의미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자동차산업 위기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저도 이어지는 시간 함께하며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이 벤처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될 것

2018. 12. 14.

제15회
충남벤처인대회

양승조 지사는 2018년 12월 14일 열린 '제15회 충남벤처인대회'에 참석,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축사를 통해 불안한 국제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충남 경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지사는 충남도가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며 △도 조직 내 벤처창업육성팀 신설 △벤처기업 육성 2차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맞춤형 지원 확대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충남벤처기업인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기업가 정신의 상징인 벤처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 벤처인 여러분의 자긍심이 더욱 커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자신감이 한층 더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최근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미 · 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금리인상 등 불안한 국제 통상환경이 우리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성장통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낮은 2.6%로 전망키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벤처인 여러분,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사정이 우리에게 더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를 물으며 새로운 산업적 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충남경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3대 위기 극복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충남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의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기술의 변화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벤처창업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첫째,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조직을 정비하여 벤처창업육성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벤처기업 육성 2차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충남벤처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높여 가장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벤처기업 창업지원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마케팅, 판로 확대 등 맞춤형 지원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시설투자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벤처 투자조합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과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충남과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미래발전을 위한 우리의 열정을 모으고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 기해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사회적경제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2018. 12. 17.

2018 사회적경제
한마당

충청남도는 2018년 12월 17일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소통과 화합,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고령화 ·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선 7기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협력과 포용 성장을 견인해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사회적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협동과 연대의 상징인 우리지역 사회적경제의 주역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자조를 높여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 역시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선정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하면 우리 충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등 제도적 근거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수는 2012년 172개에서 2018년 현재 839개로 무려 4.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역시 2012년 250억에서 2017년 1,609억 원으로 6.4배가 늘었습니다. 고용인원도 2012년 1,136명에서 2017년 3,091명으로 2.7배 증가해 비교할 수 없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늘 함께해주신 사회적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님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협력과 포용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믿고 다시 한번 충남 사회적경제의 지치지 않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균형적인 지역성장 모델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은 북부권과 남부권 간 소득과 사회기반시설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저개발 농촌지역은 생산과 소득이 적고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돌봄’ 등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농산품 제조와 가공’ 등 농어촌 지역기업들을 새롭게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정부의 판로확대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었습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이에 두 번째로, 판로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들이 자체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 업종별 지원체계 구축 등 각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더욱 높이고 온 · 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실효성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현장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이어지도록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시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선도적인 모델 만들자

2019. 7. 18.
2019년 상반기
경제상황점검회의

충남도가 2019년 7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둔화 등에 따른 도내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했다. 양승조 지사는 세계 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유감을 표명한 뒤,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갈등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되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막중한 책무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어느 때도 경제가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은 많은 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2019년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국가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6월 29일,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을 마무리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분쟁이 패권다툼의 성격이 강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충남 경제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질서에 역행하는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은 우리 충남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단가 하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수입규제로 인해 관련 업계의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와 충청남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고, 업계의 동향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 경제, 특히 충남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활성화 방안 등에도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 등 인구 구조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충남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볼 틈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참으로 치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옥죄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해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이를 국가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시간인 2년차를 맞으며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인 미래발전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법도 찾아 도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들께서 오랜 경륜과 깊은 지혜로써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기반을 다지고 국방산업 미래 함께 만들 것

2019. 9. 5.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식

2019년 9월 5일 충남지역 중소 · 벤처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견인할 충남국방벤처센터가 건양대학교 안에 둥지를 틀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이날 국방기술품질원과 공동으로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에서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국방 벤처 센터가 자주국방과 국방산업의 미래를 견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방 관련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충청남도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 논의가 국방기술품질원과 논산시, 국방 관계기관, 도내 여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인 '국방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이렇게 개소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뜻깊은 오늘 개소식을 통해 충남지역 중소 · 벤처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가 있기까지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우리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국방기술품질원은 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남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드디어 2019년 2월, 충남도와 국방기술품질원, 논산시는 공식적으로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획된 사업비 출연과 도내 19개 기업과의 협약이 이루어졌고, 결국,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개소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결실은 결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참여해준 각 기관들의 열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해 준 각별한 책임감의 결과입니다. 센터가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국방기술품질원장님과 논산시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방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뜻깊은 개소식을 발판삼아 보다 본격적인 걸음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미래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이래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커다란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16년 14조 8천억 원에서 2017년 12조 7천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16년 3.4%, 2017년 0.5%로 제조업 평균인 6%와 7.6%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이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될 계획입니다. 국방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국방수요에 대비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개소식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각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받고, 보유한 우수기술을 국방산업에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 충청남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남 국방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방 관련 정부기관과 방산업체의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방 · ICT 첨단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남국방벤처센터가 함께해준다면 우리의 마주한 많은 과제를 거뜬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뜻깊은 오늘, 국방산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며, 충남국방벤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창업기업의 날갯짓 돕는 든든한 동반자 약속

2019. 11. 21.

충남 창업마루 나비
(Startup-Navi)
개소식

충청남도가 유망 청년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창업 전용 공간'을 설립했다. 도는 2019년 11월 21일 천안시 불당동에서 양승조 지사와 청년창업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창업마루 나비(Startup-Navi)'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충남창업마루 나비'는 도내 처음 들어서는 광역단위 창업지원 전용 공간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든든한 동반자 로서 창업마루 나비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충남청년창업프라자가 '충남 창업마루 나비'라는 이름으로 힘찬 출항의 돛을 올립니다. 충청남도 창업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충남 창업마루 나비의 출발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지사로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오늘 개소식을 통해 충남창업마루 나비가 그 이름 그대로 충남에서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 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창업 보육과 지원의 역할을 다하는 충남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창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업은 새로운 업(業)을 만들어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이끕니다. 고용과 혁신을 주도하는 창업이 바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26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89.6%는 1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의 40%,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의 50%가 창업 5년 이내의 신생기업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조성된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4.
기업하기 좋은 충남

우리 정부에서도 벤처 · 창업기업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핵심요인이라는 인식에서 2019년 3월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 세계적인 벤처창업 붐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다짐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혁신창업 · 벤처투자의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걸림돌을 해소하며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왔습니다. 민선 7기 우리 도정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핵심과제로 삼고 더 좋은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남을 세계적인 벤처 ·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
먼저,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충남스타트업 파크인 〈C-station〉과 내포 혁신창업공간이 예정된 시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및 제반 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제도적 ·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겠습니다. 창업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도 교육청, 시 · 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창업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창업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창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형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창업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인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은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마루 나비가 개소하는 이곳 천안은 수도권 등 사통팔달 교통여건이 좋고 35개의 창업 유관기관과 14개의 대학, 65개의 주거단지 등이 집적되어 있어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여건과 기회를 더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신생기업은 2016년 33,544개에서 2017년 36,611개로 3,067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로 세종에 이어 전국 2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충남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6%로 전국 28.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보면 충남이 창업 자체는 활발히 이루어지나 성장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창업, 지속하기 어려운 창업이지만, 충청남도와 창업마루 나비, 그리고 창업기업인 여러분이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 샤오미 같은 유니콘 기업이 충청남도와 창업마루 나비의 지원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충남청년창업프라자, 충남창업마루 나비의 개소에 맞춰 오늘 제가 꾸는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창업 1번지, 충청남도의 더 좋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창업기업인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창업기업인과 충남창업마루 나비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5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미래를 향한 혁신과 투자
세계 최고를 향해 도약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면서
충청남도는 산업과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세계 최고의 자리를 더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4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출구

2018. 11. 15.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충청남도는 2018년 11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양승조 지사는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 등 충남의 전략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에 위원 스무 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계와 연구계, 기관 · 단체 · 기업체를 망라한 많은 위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른 분의 위원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 정책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자문과 논의를 통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도에서 마련한『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입니다. 혹자는, 초연결과 융합의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저출산 · 고령사회의 대안을 창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실례로, 전문기관(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2016년 9,400만대의 0.8%인 75만대에서 2030년 1억 2,000만대의 30%인 3,400만대로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율자동차도, 보스톤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2030년 신차 10대 중 4대를 차지할 것이며, 연관 서비스 시장도 2015년 300억불에서 2030년 1조 5,000억불로 50배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편의 전망은 또 다릅니다. AI가 탑재된 지능화 로봇 등의 출연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의 형태마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이제는 '전망'을 넘어 '기획'과 '실천'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실천의 기초를 놓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 ·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과 함께 사람과 사회제도에 대한 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핵심인재 양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만 총 5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 · 국 · 원 · 본부장님들께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꼼꼼히 살피고, 선진국들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한층 앞서가는 대응전략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 등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우리 도 전략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전략산업들을 한층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먹거리 영역을 발굴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은 새로운 출구를 열어줄 신무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예타 통과 등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종축장 부지에 한국형 제조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미래를 견인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연구와 활용방안을 대해 효과적인 제안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우리 도의 확고한 의지가 함께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를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4차산업으로 혁신성장, 남북관계에서 기회를

2019. 2. 13.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

충청남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충남 경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도는 2019년 2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을 갖고 충남경제발전전략을 안팎에 공표했다. 충남경제발전전략은 4차 산업혁명 급부상, 남북관계 개선, 인구 감소, 양극화 심화 등 시대 변화와 과제에 대응해 충남 경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전략 수립을 추진해왔다. 양승조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꺼져가는 혁신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남북관계의 순풍에 돛을 올려 기회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 각계각층의 도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행복한 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의 희망찬 청사진을 펼쳐보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은 사람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조화를 통해 충남도민 누구나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이 바로 우리 충남경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단지성과 숙의를 통해 충남경제의 미래를 함께 그려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포식까지 고견을 아

끼지 않으신 충남경제발전전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과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을 앞당겨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해나가길 기원합니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산업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고, 커져가는 계층과 세대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극복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다가오는 기회의 파도를 타야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살리고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침반과 방향타가 필요합니다.

저는 '충남경제발전전략'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등대이자 새로운 나침반과 방향타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전략을 마련해준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들은 도민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산업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은 불안정한 판로와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청년과 학생들은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일자리 걱정 없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문을 언제 닫게 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한숨과 하소연을 주셨습니다.
결국,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누구나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가계와 기업,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더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제가 어렵다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지역의 경제주체들과 힘을 모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발판삼아 꺼져가는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려내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순풍에 돛을 올려 기회의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파고도 기업과 정부의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민선 7기 충청남도의 목표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정비전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충남경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렇게 청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긴 계신 경제인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충남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기회를 만들자

2019. 3. 7.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충청남도는 2019년 3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양환경 · 생태복원과 해양 생물 보호 등 건강한 바다 환경을 기반으로, 해양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주도 운영체계 및 지역상생 전략을 통해 수산자원을 복원하고,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솔감저수지 해수유통으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웅도 내 갯벌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을 하나로 잇는 명품 생태공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새로운 유형의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를 되살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그 원대한 밑그림을 제시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열매가 맺기까지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삶의 터전인 가로림만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꺼이 뜻을 함께해주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이 자리가 가로림만을 환경피해와 갈등의 대명사에서 청정한 환경과 공존의 대명사로 탈바꿈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을 거슬러 1976년의 가로림만은 지금과는 참으로 달랐습니다. 구불구불 내달린 산과 들은 바다와 어우러져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품은 갯벌과 바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로림만은 폐수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79개의 방조제로 둘러싸인 닫힌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5개의 하천 중 무려 4개의 하천이 막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사라져가는 생명이 다시 깃들 수 있도록 하구를 열고 갯벌을 되살려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로도 농경지의 250배에 달하는 생명의 공간 기수역을 되살리기 위해 민물과 바닷물을 다시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가로림만의 보전과 복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림만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국가해양정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 구역입니다. 점박이 물범과 거머리말, 흰발농게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생태자원의 보고인 가로림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닫힌 하천을 열고 막힌 방조제를 뚫어야 합니다.

솔감저수지와 어은천의 해안선을 되살려 다시 생명이 깃들게 만듭시다. 10.4㎞의 해안선과 217만㎡의 갯벌을 복원하여 지역 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다시 살아난 바다와 생명을 되돌려 드립시다.
가로림만이 모두가 머물고 즐길 국가적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균형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추진

2019. 4. 29.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
최종보고회

충청남도는 2019년 4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민선 7기 역점과제인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은 충남을 북부 · 남부 · 서해안 · 내륙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성화된 핵심 산업자원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수립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4개 권역의 성장을 이끌 7대 핵심 산업을 선정, 5조 6,230억 원을 들여 112개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7대 핵심 산업은 맞춤형 힐링 산업, 첨단소재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K-바이오소재 산업, 초연결 에너지 산업, 국방지원체계 산업, 생태문화서비스 산업 등이다.

우리 충남 각 지역의 특성과 핵심 산업자원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지방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충남의 미래 먹거리와 지역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9월, 도와 시 · 군, 전문가, 충남TP로 구성된 충남 미래산업혁신추진단의 출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추진단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미래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이끌 거점으로 육성할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의 수요와 산업자원을 연계하여 수립한 권역별 산업발전전략 최종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은 지역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 중심,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 산업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남의 산업별 생산액(2016년 기준)을 보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군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인근 지역과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종속된 산업구조로 인해 다양한 문제 또한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침체에 따른 주력산업의 위기가 지역의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도내 서북부권에 핵심산업이 집중되는 등 균형발전 요구를 거스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다양화와 도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시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여러분과 함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7기 충남도정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의 성장을 선도할 미래사업 발굴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은 4대 권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성장을 견인할 7대 핵심산업군을 지정하고, 도와 시 · 군, 시 · 군 서로가 연계 추진할 다양한 세부사업도 제언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들과 연계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 · 군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뜻깊은 보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신산업,
미래 혁신성장의 중심축

2019. 6. 10.

해양신산업 분야
유럽 순방 성과
기자간담회

양승조 지사는 2019년 6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남호 역간척을 해양생태계 복원 모델로 만들고,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당초 목적을 잃은 부남호의 생태를 복원해 민간 투자를 이끌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바탕으로 민선 7기 들어 부남호를 역간척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날 양 지사는 휘어스호 등 네덜란드의 하구둑 · 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 해수유통 논의 과정, 해수유통으로 인한 효과 등을 언급하며 네덜란드 방문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부남호 역간척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신산업을 우리도 미래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왔 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지사 취임 후부터 구상해왔던 우리도 해양신산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해양신산업 혁신성장의 방향을 두 가지 축으로 구상해 왔습니다. 첫째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복원이며, 둘째는 해양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핵심 방향인 '하구복원'의 선진사례로 네덜란드 견학 성과와, 미래성장동력 산업 으로서 '해양치유산업'의 선진사례인 독일 견학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

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남호 역간척'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하구복원 사례 견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부남호 역간척' 성공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덜란드의 '휘어스호'는 1962년 재난, 해일방지, 담수 확보와 함께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최남단 하구를 막아 건설되었습니다.
하구를 막은 목적이 우리의 산업용지 및 농경지 확보 측면과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 도의 '부남호'처럼 '휘어스호'도 방조제 건설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담수호 내에 녹조가 발생하고, 해역 측에는 갑각류와 어패류가 사라지는 등 주변 환경에 위해요소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남조류의 번성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 수중 7m 이하 수상식물이 죽어가고 악취가 났으며, 결국에는 호수를 찾아온 철새들이 죽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000년대 수질악화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논쟁 끝에 해수유통을 위한 터널을 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해수유통을 시작하였고, 당초, 2년 정도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였던 수질개선 효과가 2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휘어스호'는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개선으로 갈매기를 비롯한 바닷새와 해양생물이 증가하고 깨끗해진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해양레저 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선문을 통해 북해로 나아가는 요트들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질랜드 주정부의 '휘어스호' 해수유통이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자, 중앙정부에서는 볼케락호와 하링플리트댐 등의 해수유통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적 결정이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레블링겐호'의 경우 부분적인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담수호입니다. 하지만 해수유통량이 적어 수질오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해수유통 증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담수호의 수질은 '해수유통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것을 배운 것은 이번 견학의 매우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배운 바를 토대로 우리 도에서도 부남호 역간척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11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여전히 6등급, 매우 나쁨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남호의 해수유통을 시행할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110억 원이 절감되고, 갯벌의 복원(4.58㎢예상)으로 연간 288억 원의 어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억 원으로 예상되는 해수유통을 위한 초기 투자비 회수에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으로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면, 천수만의 해양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천수만과 부남호로 연결되는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어족자원이 증대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악취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생태자원이 복원되면 해양레저관광객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기에 더하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업도시, 웰빙특구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부남호와 크기가 비슷한 '휘어스호'(1.5배)의 해수유통 모델을 거울삼아 부남호 역간척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부남호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부남호의 역간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고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으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독일 방문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관심, 그리고 혈압, 결핵 등 만성질환과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개념도 단순 치료에서 라이프 케어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1880년대부터 '쿠어오르트(Kurort)'라는 치유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치유를 활성화해 왔습니다. 독일의 해양치유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을 의학치료 전후의 보조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 중이며,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우제돔 또한 호텔과 병원이 결합된 메디텔(Meditel) 형태로, 일반 투숙객을 위한 호텔 기능과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을 결합하여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우제돔 지역은 인구가 8,6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부분이 해양치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양치유를 위한 연방문객이 330만 명에 이르는 등 옛 동독 지역에서도 손에 꼽히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해양치유는 우제돔 지역 주민 완전 고용뿐 아니라 인근 폴란드의 주민까지 치유산업에 종사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폴란드 지역이 오히려 인력난을 고민해야 하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의 특성상 휴양형 요양과 체류형 치료가 필요한 만큼 숙박, 쇼핑, 관광 등 지역소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독일은 해양치유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비용 절감과 경제적 효과 45조 원, 일자리 45만 개 창출 등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소금, 머드, 갯벌, 해사 등 유럽 못지않은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과 다른 차별화 전략은 해수욕장 주변의 빼어난 해송 숲을 통한 산림치유와 해양치유의 복합 모델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산림치유와 연계한 해양치유 발전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은 의료, 관광, 해양바이오산업 등 다른 분야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우리 도의 고민인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해양치유산업의 가시화도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안의 경우, 2017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내 최초 해양치유자원인 '모아'를 발굴하였으며, 소금팩, 모래 등을 이용한 치유 효능 검증 등 산업화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단순한 축제, 관광형 박람회가 아니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박람회입니다. 박람회를 기반으로 태안과 함께 서해안 벨트를 구축하여 충남을 세계적 해양치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자연'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해양치유를 통해 건강과 치료, 관광을 함께 선사하여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언론인 여러분,
저의 이번 유럽 순방 일정은 이처럼 우리 도의 미래 역점시책인 해양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위한 선행사례학습과 정책견학에 방점을 두고 기획했습니다. 6박 8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농업강국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도 안 되지만, 농산물 수출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2017년도 농업분야 수출액은 1,008억 유로입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300억 불 가까이 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6,024억 불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네덜란드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농업 · 산림분야 세계 1위 대학연구소인 바게닝헨대학 연구센터(WUR)와 원예산업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세계원예센터, 그리고 화훼경매장 등 총 3곳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며 교육과 연구 개발(R&D)에 집중투자하는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의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은 네덜란드 농업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회사 연구소, 그리고 생산시설이 바게닝헨지역 푸드밸리 클러스터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게닝헨대학연구소는 공적자금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정부, 기업체, 연구자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농업을 미래전략으로 육성하고, 이를 농업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체계화되어있습니다.

세계원예센터(World Horti Cente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00여개의 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전시, 연구, 훈련 및 교육이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기업, 교육기관,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화훼와 원예산업의 R&D를 이끌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현대화된 원예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태와 규모의 차이가 있는 네덜란드의 농업을 단순하게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농산물 수출입 기반조성과 현대화된 시스템,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 그리고 긴밀한 산학연 시스템은 앞으로 배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충남 농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바게닝헨대학교 연구센터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네덜란드 농정을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등에 접목할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연구 등 연계협력 사업 등도 찾아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해양생태계 복원과 해양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배운 것들을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접목하고 구체화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브리핑으로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모두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충남 해양신산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양신산업을 통한 충남의 비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저와 우리 충청남도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상으로 오늘 월례기자 간담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핵심 거점 내포신도시

2019. 6. 24.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청남도는 2019년 6월 24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기능 강화 △그린 수소 생산 테스트베드 조성 등 자족기능 강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특화기능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및 공업용수도망 공급 등 교류 기능 강화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혁신도시가 지역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내포신도시를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새로운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충남의 미래를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할지 TF팀을 꾸리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고민과 실천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종합하여 내포신도시 육성전략으로 가다듬고자 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그동안의 축적된 성과들을 종합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설된 세종시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 잡았 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역시 지역발전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그러나 여전히 충남도는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 국가정책에 앞장선 우리 충남의 희생은 이제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저는 충남의 혁신도시가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드시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될 내포시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유치 자체는 물론이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계획을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새로운 미래 견인

2019. 10. 10.
충남 경제투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0일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충청 남도를 방문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문 대통령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현장을 방문하고 충남 지역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양 지사는 문 대통령의 충남 방문을 환영하고 충남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투자가 결합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오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발표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주신 대통령님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생산규모 489억불 중 54%에 해당하는 264억불을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의 세계적 중심지입니다. 오늘 삼성은 이와 같은 우리 충남에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충남과 대한민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충남에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해주신 이재용 부회장님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디스플레이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변혁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혁신공정센터를 설립하고 R&D를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독점적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초격차 · 초저원가 실현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삼성의 투자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이 이끄는 희망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충남을 찾아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삼성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에너지 여건 활용해 수소산업 선도할 것

2019. 11. 21.

2019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충청남도는 2019년 11월 21일 '수소경제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19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수소경제 도약의 발판 충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 외 수소에너지 정책과 최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양승조 지사는 개회사에서 수소는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환경오염 한계를 뛰어넘을 미래 에너지라며, 수소경제 사회의 미래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이 어느덧 올해로 4회 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포럼은 국내외 수소 전문가들과 함께 수소에너지의 발전방안과 산업전망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수소경제시대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 '수소경제 도약의 발판 충남'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포럼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수소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 가장 첫 번째 화학물질로서 원자번호 1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주된 원소이며, 여러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에 바로 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원소로서 우리의 삶과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수소의 가치는 비단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보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소는 기존 화석연료의 특징인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오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 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이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써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가 우리 충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제철과 석유화학단지도 충남 서북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22.6%를 차지하며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17년 산업부분 충남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배출량의 17.3%에 달하며 여전히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충남이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9년 3월 〈2019년 충남형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하고 '수도경제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 거점 충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된 정책들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부품시험평가센터를 통해 18개의 부품 기술개



05.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 평가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이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사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LNG 발전에 수소연료 전지 60MW를 더해 내포신도시가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30일 제정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 수소 집적단지 조성, 수소기술 상용화 추진 등 보다 체계적으로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힘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수소산업은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등 전 영역에서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 니다. 따라서 수소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충청남도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소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지혜를 나눠가면서 시민의 참여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소경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계신 참가자와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서 수소경제 사회의 미래와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맨 앞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서겠습니다. 수소경제 육성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성심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완성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06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콘텐츠가 풍성한 사회는 행복의 크기와 질도 남다릅니다

충청남도가 가진 문화적 자원과
다소 부족했던 사회적 인프라를 가꾸어
도민이 꿈꾸는 더 나은 삶을 실현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충청 선현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 계승

2019. 6. 19.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공식

충청유교문화원 기공식이 2019년 6월 19일 논산시 노성면 종학당 인근에서 진행됐다. 충청유교문화원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대표 유교 전문기관으로 2021년 문을 열 예정이다. 기공식 에서 양승조 지사는 역사에서 충청 유학자들은 치열한 현실 문제에 담대하게 대응하고 외세의 침략을 목숨으로 지켜냈다며, 충청유교문화원은 충청 선현 들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할 든든한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충청의 오랜 숙원이었던 충청유교문화원을 드디어 착공하게 된 것을 충남도민은 물론 560만 충청인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우리 충청유교문화가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지켜나갈 값진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기호유교문화가 꽃을 피운 우리 충청에 오늘 충청유교문화원이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충청에 살았던 올곧은 선현들의 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역사에서 우리 충청유학자들은 당대의 치열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충절로써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문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학을 부흥시켜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조만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돈암서원과 충청유교문화원 인근의 종학당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저는 뜻깊은 오늘 기공식을 맞으며 선현들의 깊은 정신과 실천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는 선현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충청권에는 선현들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밝히고 계승해나갈 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충청유교문화원이 충청권 곳곳에 새겨진 유교전통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유산으로 계승 · 발전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충청유교가 현대사회와 더 새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지방정부와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아울러 충청유교 국제포럼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인문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충청유교가 고유한 역사적 맥락을 충실히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미래 역사를 창조할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우리 충남의 노력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힘찬 첫발을 내딛는 충청유교문화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는 충청유교문화 부흥 약속

2019. 9. 18.

2019 충청유교
국제포럼

충청남도가 세계화와 다문화 흐름의 현대사회에서 유교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019년 9월 18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류와 소통하는 충청유교 – 문화다양성과 유교문화'를 주제로 제3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 번째 포럼을 맞이해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유교문화의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면서, 충청유교문화가 더 폭넓게 공유되고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
끊이지 않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공존의 역사를 이어온 아시아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동아시아 유교문명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환황해 유교문화권 국가 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 충청유교 국제포럼에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을 550만 충청인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충청유교 국제포럼이 이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2017년 첫 포럼에서는 '충청유교 문화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평화로운 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열띤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제2회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석학과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유교문화 콘텐츠의 발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럼을 맞아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탁월하고도 고유한 유교문화의 가치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이번 포럼의 논의를 위해 국내외 유교분야 관계자들과 석학들께서 우리 충청을 찾아주셨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이고 영원한 선사(先師)이신 공부자(孔夫子)의 제79대 적장손 콩추이장(孔垂長) 봉사관께서 직접 포럼에 참석해주셨습니다. 미국 국무부 유네스코 위원이자 하버드대학의 연구원이신 패트릭 멘디스(Patrick Mendis) 교수님께서 태평양을 건너 내한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 산동성 산동대학 유학고등연구원의 자이쿠이펑(翟奎鳳) 교수님께서도 주제발표를 위해 함께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유교학의 최고 권위자이신 성균관대 이기동 명예교수님과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신 국민대 이상해 석좌교수님께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함께해주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의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이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함께해주신 여러분!
금년 들어 대한민국 충청 유교문화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 습니다. 우리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9개 서원이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야심 차게 준비해 왔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역시 금년 6월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충청 유교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바탕으로 이번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통해 '인류의 소중한 기억'인 충청유교문화가 더 폭넓게 공유되고 적용되길 기대 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유교가 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미래지향적 사상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연구와 대중화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
유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학문이자 문화체계입니다. 비단 우리 충청과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각국이 그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 충청유교 문화 부흥의 길을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2019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과 품격 수준 높이는 건축과 공공디자인

2019. 10. 10.

2019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

양승조 지사가 2019년 10월 10일 아산에서 열린 '2019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충남이 건축과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 지사는 건축과 디자인은 지역 문화 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행복이라며 문화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좋은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명실상부한 충남 최고의 건축 · 공공디자인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한 2019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의 성대한 개막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문화제를 통해 지역 건축문화와 디자인 품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 나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좋은 건축물과 아름다운 공간은 지역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입니다. 생활과 문화가 펼쳐지는 토양으로써 도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창조와 열정의 촉매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얻은 삶의 활력이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는 근래 각 지자체가 추구하는 트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의 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하겠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건축함으로써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저 또한 내포신도시를 내포신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그리고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 그 자체를 디자인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아직 도시가 형성과정에 있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건축해나가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특징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참으로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건축하여 살아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경관이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건축문화를 높여 우리 충남을 대한민국 건축과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아산시는 충남과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 첨단 산업을 이끄는 중추도시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제가 오랜 전통과 매력을 지닌 구도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첨단도시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발굴 · 육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충남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내일을 여는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 행복과 명품 충남 건설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찬란한 백제문화,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 콘텐츠로!

2019. 11. 19.

2019 백제문화제
국제포럼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2019 백제문화제 국제포럼'에 참석,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 포럼은 '한류의 시대, 백제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제65회 백제문화제 결과 보고, 주제발표 등이 진행됐다. 양 지사는 축사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포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줬던 백제문화는 한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백제문화제가 예순다섯 돌을 지났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백제문화제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기록과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시민과 학계, 그리고 기업과 민간단체가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기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백제문화제는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올해 10월 6일 막을 내린 제65회 백제문화제에서는 총 93만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총 33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시에는 369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여 총 119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2,39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제문화제의 힘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백제문화제는 충남도민의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충청남도를 보다 품격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명예와 자부심을 드높여 준 것입니다.

우리는 백제문화가 가진 역사문화의 힘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2015년 7월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백제문화제는 더욱 소중한 우리의 역사문화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류의 중심에 서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한류의 시대, 백제에 주목하라'라는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백제는 왕성한 해상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무역을 주름잡으며,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중국, 일본에 우수한 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며 포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줬던 백제문화는 한류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류는 이미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제 역사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류 콘텐츠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한류콘텐츠로서 백제문화를 활용하고 이를 백제문화제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백제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세계를 향한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공주시와 부여군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백제문화제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원회의 자생력과 전문성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명실상부한 거버넌스형 축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홍보에도 앞장서며,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충남도내 여러 시 · 군의 참여를 꾀하고, 타 시도의 백제문화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백제 문화제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삼일운동 정신으로 일구는 '금강의 기적'

2019. 11. 20.

3 · 1운동 100주년 기념
범도민 대토론회

충청남도는 2019년 11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3 · 1운동 100주년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의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맞춰 2019년 도가 추진한 각종 기념사업 등을 공유하고 충남의 독립운동정신 계승 등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선조가 목숨으로 지킨 역사를 더 가치 있게 가꾸는 것은 후대의 막중한 의무라며,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금강의 기적'을 일궈내자고 말했다.



올해는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적인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숭고한 충남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 각층의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열린 토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범도민 대토론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충남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이정표를 세워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다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100년 전 3 · 1운동의 뜨거웠던 만세 소리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적인 출발점입니다. 선조들은 일제 36년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피와 땀을 바쳐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874분의 순국선열(충남 38)과 7,031분의 애국지사들(충남 320)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로 애국자였고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과 가족의 안위를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은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를 잇고 이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역사를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가꾸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대들의 막중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 선조들의 값진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충남 곳곳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우리 충남의 3 · 1운동은 충절의 고장이라는 명예에 걸맞게 참으로 뜨겁고 탁월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에서 시작된 3 · 1운동은 충남 병천의 아우내 장터, 서천 마산 등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특히 충남 3 · 1 운동의 독특한 형태인 봉화와 횃불만세운동으로 분출되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충남만의 강렬한 투쟁을 꽃피웠습니다.
횃불만세운동은 야간을 이용하여 일제의 탄압을 피하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충남 지역 3 · 1운동 339회 가운데 횃불만세운동은 206회에 달했고 이는 전체 운동의 61%에 이를 정도로 충남을 대표하는 운동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남의 3 · 1운동이 대한민국 3 · 1운동사에 있어서도 핵심 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3 · 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토대를 다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에 과제를 향해 다시금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로 거듭난 '한강의 기적'을 이어갑시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더 행복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금강의 기적'을 일궈냅시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충남의 3 · 1운동 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위대했던 우리 선조들의 3 · 1정신을 이어 더 새롭게 승화시켜 나가길 바라며,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3대 위기 극복과 혁신도시 지정 등 충남과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과 재조명에 앞장서겠다

2019. 12. 13.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 제막행사

충청남도가 2019년 12월 13일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서 항일여성독립 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가운데 여성 독립유공자가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남녀 차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독립과 항일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항일여성독립운동 선열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 제막식이 항일독립운동여성운동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포신도시와 충청남도가 독립운동의 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회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우리는 3 · 1만세 운동을 유관순 열사의 이름과 함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속의 독립운동가는 대부분이 남성 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남성이 1만 5천 353명인데 반해 여성은 47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독립운동가의 3.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의 독립운동은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 우리 역사 구석구석에 묻혀 있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 경제적 차별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의열투쟁과 광복군, 임시정부 활동부터 독립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등 남성과 똑같이 폭넓은 독립 활동으로 조국을 지켰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평남도청을 폭파했던 안경신 열사, 외교사절단이 왔을 때 엄지와 검지를 절단하고 혈서를 썼던 남자현 지사 등 독립이 있기까지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밤을 밝힌 것은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여성인권과 인류평화의 메시지가 식민지 어둠의 밝은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남성독립운동가 중심의 편향된 역사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한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광복을 위한 희생은 합당하게 예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3 · 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충청남도가 여성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유관순 열사, 김복순 열사, 김현경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여성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유 · 무명의 항일독립운동 여성들을 발굴하고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여성선열들의 항일투혼을 제대로 기록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여성선열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투쟁의 성지, 충청남도가 여성독립유공자와 유족 여러분이 그 명예와 자부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존경받으며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4월부터,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유족의 배우자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119 이송 예약제를 실시하여 병원진료와 상담, 건강검진 시 특별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독립유공자 유족분들도 도내 시내버스이용요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의료지원 지정병원을 충남과 대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위문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앞서서 계승할 수 있도록 3 · 1운동 충남 백년의 집을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하고 충남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등 보훈공원을 보다 활성화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여성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여성의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운명은 여성의 힘이 좌우 합니다. 오늘 제막하는 이 여성상에도 여성의 힘과 기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자주권과 인류평화를 힘껏 외치는 한복 입은 여성상과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인쇄물을 나눠주는 미래의 청년 여성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을 보며 혁명 전날의 그 밤



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인권과 인류평화의 정신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제막식과 이후 이어지는 학술토론회와 전시 특별전이 항일독립운동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다양한 노력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념사업회의 모든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6.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삼일운동 100주년, 그 정신을 더 새롭게 승화하자

2019. 12. 18.

(가칭) 3 · 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및 운영방안
설정을 위한 포럼

3 · 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및 운영방안 설정을 위한 포럼이 2019년 12월 18일 천안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열렸다. 포럼은 '충남 3 · 1운동,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다가올 100년을 맞이하며'를 주제로 백년의 집 건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양승조 지사는 2019년이 3 · 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다며 충청남도는 3 · 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다가올 100년을 맞이하며 3 · 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및 운영방안 설정을 위한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금년 2019년은 3 · 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에 2019년 한 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켰고,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의 업적과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 하였습니다. 3 · 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은 100년 전의 역사를 오늘의 살아 숨 쉬는 역사로 만들었고,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뮤지컬 '워치' 공연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뜻깊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펼쳐왔던 값진 활동들을 바탕으로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위대했던 우리 선조들의 3 · 1정신을 이어 더 새롭게 승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충청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충남의 독립운동을 영원히 기억하고 올곧이 기념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가칭 '3 · 1운동 충남 백년의 집'은 충남 독립운동 100년의 역사를 숭고하게 기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고귀한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과 체험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충남 백년의 집 건립을 위해 건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3 · 1운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과 특징을 어떻게 담아내고, 또 어떻게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은 백년의 집을 통해 충남의 3 · 1운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제언과 토론 예정하고 있기에 참으로 뜻깊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7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맑은 물, 깨끗한 하늘을 되찾고 지구를 살리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세상,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충청남도가 한발 앞서 나아갑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청정연료 전환, 내포신도시와 충남의 새로운 시작

2018. 9. 3.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9월 3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양승조 지사와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내포신도시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내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남부발전과 롯데건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의 주요 에너지원을 LNG로 변경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청정연료 전환에 합의한 데 고마움을 표하고,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수부도시로 성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청정연료 전환을 약속하며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을 위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이번 청정연료 전환의 토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롯데건설은 1959년 창립한 이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오셨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내포신도시에 임시 보일러를 설치하고 초기생활권 열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한국남부발전은 2001년 출범한 발전 전문기업으로서 부산 등 전국 7개 핵심지역에서 우리나라 총 설비용량의 9.6%를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청정연료 전환이라는 뜻깊은 약속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남부발전, 롯데건설이 보여주고 계신 헌신과 노고에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은 내포신도시, 더 나아가 충청남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선포식을 계기로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수부도시로 성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정연료 전환을 위해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롯데건설과 한국남부발전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주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익적 가치에 무게를 둔 담대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포식을 계기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드는 일에 저와 충남도가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기업이 하나가 되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인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조성해 나갑시다. 내포신도시와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정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

2018. 9. 12.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2018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산시에서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열렸다. 전국대회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 전국 지속가능발전 담당과장 회의, 라운드테이블 등이 이어 졌고, EU의 프로그램인 한-EU 기후행동 공동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기관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EU프로젝트 팀 간의 공동협약도 있었다. 양승조 지사는 개막식에서 전 세계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충청남도는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을 두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남도를 방문해 주신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을 220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 대회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등 환경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해수면은 2100년이 되면 현재보다 66cm나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기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6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인구의 약 11%가 하루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5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지역불균형 역시 더욱 심화되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 함께해주신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여러분은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이래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한 지역과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2000년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된 이후 지역별로 경제와 사회, 문화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를 맞는 이번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의제21을 활성화하는 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지표를 개발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17개 목표, 62개 전략과 지표로 이루어진 기본계획을 광역도 최초로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세부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위한 제도적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적극 추진하며 미세먼지 해결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아기 수당을 도입하고, 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비롯해 교육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평등권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복지수도 충남'을 목표로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 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원 여러분!
우리 충남은 수많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고장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멀리에서 오신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보령머드엑스포와 한산 소곡주, 서산 어리굴젓과 금산 인삼까지 곳곳마다 멋과 맛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행복한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으로 바다를 지킬 것

2019. 3. 28.
바다지킴이 발대식 및 연안 대청소 행사

충청남도는 2019년 3월 28일 보령시 소황사구에서 양승조 지사,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업인, 도내 기업 · 단체,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 바다지킴이 발대식 및 연안 대청소'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겨울철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청소하고 해수욕장 · 도서지역 관광객의 의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자 마련됐다. 양 지사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문제로 전 세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는 2019년을 해양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선언하고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 실행한다고 소개했다.

바다를 사랑하시는 도민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바다지킴이 발대식』과『연안 대청소』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충남을 만들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어업인과 기업, 각 단체, 관당초등학교 학생들과 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소황사구'는 국가가 지정한 생태경관 보호지역이자 아름 다운 해양경관 보호구역입니다. 소중한 해양보호 생물과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터전입니다. 그동안 소황사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쳐주신 소황사구 보존관리협의회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다환경을 지키고자 나서주신 '바다지킴이' 500여 분과 해양쓰레기 자율 정화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시는 어촌계 분들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바다지킴이 발대식』과『연안 대청소』행사를 통해 다시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찾고 싶은 충남의 바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약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계의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가 전체 물고기의 무게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G20 정상회담에서는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을 채택하였고, 2018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리나 이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남에서 발생하는 양은 15,000톤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어획량의 약 10%에 달하는 3,000억 원 이상의 유령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약 2,000여 건의 해양사고 가운데 15%에 달하는 300여 건 이상이 해양쓰레기 등 부유물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관점의 고민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는 2015년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140억 원을 투입 하여 10,457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올해는 185억 원을 투입해 14,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앞으로 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과 해양환경도우미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늘 함께한 바다지킴이 여러분과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바다를 지키는 모범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3개 유인도서와 바다 속 침적쓰레기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해양쓰레기 콜센터 운영, 침적쓰레기 정화사업 등 연간 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탈염 · 세척 · 감용시설 등 전처리 시설과 재활용을 위한 광역 전처리장을 설치하고, 도서지역 해양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전용 운반선을 도입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충청남도는 이번 2019년을 해양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부남호 역간척 등을 통해 우리 충남을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과 해양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0만톤 감축 목표

2019. 4. 4.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회

양승조 지사는 2019년 4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9만 8,571톤(35.3%)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낮춰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산업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세먼지 관측장비 설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실질 적인 행동에 나선다. 양 지사는 이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와 중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와 경유차 등의 이동오염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7.4%를 차지하는 등 지역적 특수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맞춰져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말,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중심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7기인 2022년까지 도내 대기오염측정소의 증설, 민감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등 공공부문에 2천 16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 민간 사업장의 환경정화 및 개선비용에 3조 1,16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여 총 3조 3,325억 원을 투입, 우리 충남이 맑은 공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22년까지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5년보다 35.3% 감축될 것이며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또한 국가기준 17마이크로그램(㎍/㎥) 보다 강화된 15마이크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대폭 줄여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충청남도 대기배출허용 기준 조례를 개정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및 가동정지(셧다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권한 부여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옥외 저탄장 비산먼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산업부문의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지역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배출원별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드론, TM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후 경유차 및 건설 기계장비 등 이동 배출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또한 확실히 저감시키겠습니다. 2022년까지 106억 원을 투입해서 6,610대의 노후 경유차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296억 원을 투입하여 826대의 경유 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량을 천연가스 또는 LPG 차량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561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 2,512대의 구입을 지원할 것이며, 전기 및 수소 충전소도 확충하여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로화를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전력을 공급하는 장치(AMP)를 보급하는 등 이동오염원 배출 관리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등 환경보건의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건강보호 대책을 대폭 확대하고, 실내 공기질 또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9억 원을 투입해서 민감 ·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것이며, 136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주변 녹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석탄화력 발전소, 산업단지밀집지역에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우리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도내 우심지역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 부과 등 산업부문에 대한 배출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기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배출허용 총량이 초과되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언론인 여러분!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여러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도 특성에 맞춰 산업체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었 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 안전관리계획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시키는 등 재난 대응 수준으로 관리해가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측정결과 또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 미세먼지 특별회계' 설치, 미세먼지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방법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하위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국가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경성 미세먼지 분석을 위하여 충남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①미세먼지 종합측정소를 설치하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과 도민 홍보와 교육을 담당할 복합기능으로 ②미세먼지 안심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공공기관 식물정화벽 설치, 그리고 마을회관과 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산업시설 주변지역에 ③대형공기정화기 설치도 시범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쉼터 등을 집중 설치하는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임산부 등 건강피해 우려자에 대한 공기청정기 대여서비스 등 사각지대 없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도민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고 논의 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행복한 충남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정책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 학부모 등 131명 규모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본 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의제발굴부터 이행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확고하고 속도감 있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 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의 공동대응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동대응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와 인접한 중국 강소성, 섬서성과의 환경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교류 사업 의제에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AECE)을 설립하여 동아시아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공동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가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공통 의제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 환경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우리 도의 이와 같은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되찾고 이를 마음껏 누림은 물론, 우리 후세대에게 온전히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충남도 모든 공직자는 이를 위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환경교육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삶터 가꾸자

2019. 9. 20.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식

충청남도는 2019년 9월 20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도교육청, 충남환경 교육네트워크와 함께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은 도민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도는 선언문을 통해 '환경교육으로 하나 되는 행복공동체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토대 확충 ▲도민 환경소양 함양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환경교육 역할 증대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양승조 지사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확대 · 보급해 도민 인식개선에 나서겠다면서, '환경교육도시 충남'을 조성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함께 가꾸자고 당부했다.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께 환경의 가치를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해 주신 추진기획단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선언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 충남'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다 함께 가꾸어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우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이름 아래 더럽혀진 하늘과 시냇물, 심화되는 생태계 파괴는 이제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세대인 우리의 일상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7.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부족하다는 의견은 37.2%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 확산(30%)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충청남도의 민 · 관 · 학 · 연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교육 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함께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환경교육 전문가를 육성하여 유치원과 마을회관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체험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연수원을 건립하여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보급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뜻을 모아주신 각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한다면 우리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표적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충남교육청과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의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소중한 다짐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질 좋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 10. 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

충청남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또 충남도는 도민과 함께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7개 지방정부는 2019년 10월 22일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현안"이라며 "이제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과 환경단체, 지방정부와 전문가, 모든 참석자 여러분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청명한 대한민국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탈석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세계로' 함께 힘을 모으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를 통해 탈석탄 · 기후변화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아 다 함께 실천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
인류에 의한 지구온난화 속도는 최근 133년 동안 0.85℃ 증가했습니다. 불과 100여년의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마지막 빙하기 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기후를 완전히 바꾸고 놓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2019년 지구기후 보고서'에서 지난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기간이었고, 기후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로 환경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생물 다양성 감소, 질병과 홍수 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30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1.2℃나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일수가 31.4일, 열대야가 17.7일에 달해 1973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대하여 더욱 큰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금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 실천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등 대한민국 대기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의 50%에 해당하는 30기가 우리 충남에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3.2%가 우리 충남에서 배출되었고, 그 주요 발생원이 바로 석탄화력발전소로 지목되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교란, 토양 및 해수오염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금년 9월 실시한 충남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충남도민의 공감은 매우 강력합니다. 충남도민의 대다수인 76%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80%에 달하는 도민들께서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도민의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2017년,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론화'를 주제로 처음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적 연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범국가적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9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기후행동 회의에서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인 '언더투 연합(Under 2 Coalition)' 에도 가입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석탄기반 전력생산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와 충청남도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세계로' 그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제로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7.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의 노후 수명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조정하여 2026년까지 발전소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제도를 더욱 정교히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고 산림분야에 탄소흡수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억제 조치를 강구하고 차 없는 날 운영, 승용차 요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친환경운동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차량 운행단속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접근하고 있다. 언젠가 지구는 460℃ 고온 속에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작년 3월 타계하기 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남긴 묵시론적 유언입니다.
이제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역과 국가, 대륙을 뛰어넘고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과 기관 · 단체들까지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와 충청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와 시 · 군, 도의회와 시 · 군의회, 환경단체, 주민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정책방향과 강도를 더 높여가겠습니다. 산업과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 제도와 규제를 넘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방정부들과 연대하여 공동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
이번으로 우리 도가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탈석탄 로드맵 마련과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한층 더 성숙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환경정책의 생산소비자

2019. 10. 28.

충남 환경보건열린포럼 3부 ‘청년과의 환경보건 토크콘서트’

충청남도는 2018년 10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보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에 관해 토론하는 충남 환경보건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용찬 행정부지사, 환경보건 전문가,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부로 나눠 특강, 토론,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 했다. 양 지사와 3부 토크콘서트에서 대학생 패널들과 환경보건 분야 주요 사안 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우리 충남의 미래 주역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보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충남 환경정책의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충남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를 다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앞서 열린포럼 1부에서는 ‘환경보건정책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특강과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 조별 토의에서는 우리‘충남 청년들이 선정한 시급한 환경보건 이슈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논의와 의제를 바탕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청년 여러분과 함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환경보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된 물, 폐기물, 쓰레기 등 일상을 휘감고 있는 수많은 위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험인자들이 호흡기 질환, 식중독, 아토피 등 일상의 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삶의 토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하는 미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는 모든 환경보건 이슈가 집약된 '결절점(結節點)'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의 50%인 30기가 우리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전국 폐석면광산 38개소의 66%인 25개소가 충남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석면의 분포 또한 도내 전체면적의 7.4%에 달해 석면 피해에 대한 치유와 예방이 매우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산업단지 등도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다양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충청남도는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2012년 「환경 보건헌장」을 선포하였고, 2014년에는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지방정부 최초로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된 '환경보건열린포럼'역시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이번 행사의 이름인 '열린'이라는 말은 오늘 대화의 의미를 제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책 수혜자에 머물던 도민들께서 이제는 충남 환경보건 정책에 대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충남 환경정책의 '생산소비자 (prosumer)'가 되는 장이 바로 오늘의 '열린포럼'인 것입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우리 도 환경보건 이슈와 정책방향을 거리낌 없이 제안하길 기대합니다. 주권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지사로서 저는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우리 충남의 환경보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와 거리낌 없는 제안을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넘어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2019. 12. 9.

충남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
승리보고대회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2월 9일 보령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백지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충남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 승리보고대회'에 참석해 보령화력 1 · 2호기 조기폐쇄를 넘어서 완전한 노후석탄화력발전 수명연장 백지화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보령화력 1 · 2호기 조기폐쇄 확정 결과를 자축하고 수명 연장 백지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오늘은 무척 의미 있고 소중한 날입니다. 이는 단지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관철시킨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남도민 들의 간절한 소망과 물러서지 않는 실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이 승리는 더 값지고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뜻깊은 이번 보고대회를 계기로 우리 충남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충남' 건설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령화력 1 · 2호기 조기폐쇄와 노후석탄화력 수명기준 25년으로 단축, 2026년까지 14기 단계적 폐쇄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도민 건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충남도의 결단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



07.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이었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일자리 등 지역경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2위라는 안타까운 오명을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려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더는 우리 충남의 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적 사명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그동안 이러한 신념과 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남도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 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저와 충청 남도는 보령화력 1 · 2호기 조기폐쇄를 넘어서 완전한 노후석탄화력발전 수명연장 백지화와 완전한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충남은 2017년부터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고, 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언더투 연합)'에도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기후위기대응'으로 강화하여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기도 했습 니다.
우리 충남도의 이 모든 행동은 지속가능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금세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이끌어주신 우리 300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더 깨끗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숨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대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지역현안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승리보고대회에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건강하게, 고르게, 지속가능하게 충남 곳곳에 성장동력이 자랍니다

일상의 공간이 성장하고, 경제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눕니다.
새로운 산업이 뿌리내리고,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충청남도는 격차를 줄이고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은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생존전략

2018. 10. 4.

대전 ·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대전 ·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8년 10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과 내포 혁신도시 육성방안 등에 관해 발제와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기간산업 배후에 있는 내포신도시를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면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 대학이 융복합을 통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대전 ·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충남과 대전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를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와 기업 등 모든 역량을 흡수하며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갈등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04년 참여정부는 국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지난 2010년, 22일간의 결연한 단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원안 추진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방으로 이전된 115개의 공공기관과 10곳의 혁신도시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충남과 대전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9.6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면적은 399.6㎢, 지역총생산 감소는 1조 7,99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도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은 다시 화두가 되었고, 이른바'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116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표명하면서 국가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의 보다 원숙한 실현을 위해 한시도 이 과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18년 1월 30일,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충남도지사로 취임하며 핵심 도정목표 중 하나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논의가 다시 촉발된 지금이 바로 우리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적기입니다. 그동안 충남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에 공을 들이는 동안 지역 스스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 축이자 충남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대표적 모델로서 내포지역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는 그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당장 입지해도 될 만큼 좋은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완성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음에도 10만 계획인구에 한참 모자라는 2만 5천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환기적 글로벌 경제구조 아래서 자동차, 철강 등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 때입니다.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한 효과적인 생존전략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배후에 있는 내포신도시를 글로벌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이전 파급 력이 큰 우량 공공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이전시켜 지방의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과 대학을 융복합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충남과 대전의 역할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분권형 신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더 면밀하고 진지한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가능성의 바다,
희망과 풍요의 바다 만들자

2018. 12. 19.

민선 7기
해양수산발전계획
보고회

충청남도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2022년까지 114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018년 12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충남 일자리, 혁신 · 동반성장을 위한 민선 7기 충남 해양수산 발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4조 6,904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만 204개 창출, 어가 소득 연간 6천만 원 달성, 해양관광객 연간 1,820만 명 유치, 항만 물동량 연간 1억9,200만 톤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해양치유산업 육성, 당진 왜목 마리나 조성, 광역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20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등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충남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오늘, '해양건도 충남'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 해양수산발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해주신 충남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충남 해양수산의 주역들을 모시고 민선 7기 충남의 해양수산정책과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당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민선 7기 충남 해양수산의 비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미래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특히, 연안 7개 시 · 군에 걸쳐 1,242㎞의 긴 해안선 가진 충남에게 있어 해양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통해 교역의 길을 개척했고 잡는 어업을 통해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무역로와 어장을 넘어 관광과 레저스포츠, 첨단양식, 해양자원과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해양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수산 산업규모도 연간 37조 원에 달합니다. 2018년 GDP 기여율은 무려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국내 각 시도와 해양권역들도 앞다투어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충청남도가 바다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열어주는 가능성의 크기만큼 우리가 마주한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어촌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전국 어가 고령인구 비율이 35.2% 인데 비해, 우리 도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4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마저 매우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역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그러나 위기가 바로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중심, 해양건도 충남'을 향한 민선 7기 충남호의 닻을 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바다', '찾고싶고 살고싶은 바다'를 목표로 2만여 해양수산 인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어가소득 6천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 · 어항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어업인의 복지증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푸르고 건강한 바다를 지켜 미래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의 밝은 미래를 예견한 세계적인 석학다운 혜안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선 7기 '해양건도 충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현장 주역들의 참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충남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저력을 믿고, 미래를 향해 열린 가능성의 바다를 희+망과 풍요로 가득한 결실의 바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풍당당 농촌지도자!
더 행복한 충남농업!

2019. 7. 7.

제55주년
충청남도농촌지도자
대회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는 2019년 7월 7일과 8일 이틀간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제55주년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위풍당당 농촌지도자! 더 행복한 충남농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지식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여러분!
오늘, 충남 농촌지도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더 행복한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55주년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대회를 계기로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을 높이고 충남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다 함께 모색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농촌지도자 여러분!
우리 충남농촌지도자회는 대한민국 농업 · 농촌의 선진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1970년대, 우리나라 녹색혁명의 주역으로서 식량자급의 역사를 만들었고, 농업인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께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라는 충남 3농정책의 실현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과제를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더 행복한 우리 농업 · 농촌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그동안 충청남도는 우리 농업 ·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3농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3농정책의 첫째 목표는 우리 농업 · 농촌 현장의 도민 행복입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충남,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농촌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의 성장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고품질 농업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산업을 꽃피우고,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지도자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자원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농업을 계승 · 발전시켜나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남과 대한민국 농업 · 농촌을 이끌어온 농업 현장의 산증인으로서, 우리 1만여 농촌지도자 여러분이 충남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으며, '농업 · 농촌이 행복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리며, 제55주년 충청남도 농촌지도자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충남 혁신도시는 균형발전과 성장의 원동력

2019. 8. 13.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019년 8월 13일 충남도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구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 지방분권연대 등 38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전영한 충남발전협의회장 등 1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혁신도시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동력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충남 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지방분권충남연대 대표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들께서 우리 도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나서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하고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강력한 충남의 의지를 모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갑시다.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

이번 정부가 시작된 출발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의 힘입니다. 그동안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대한민국 모두가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혁신도시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초석이라 할 것입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앞서 참여정부는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설된 세종시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은 지역 발전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실정입니다. 대의를 위해 국가정책에 앞장섰던 우리 충남의 값진 희생에 대하여 이제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충남의 새로운 혁신도시가 지역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충남의 힘을 모아 국가균형 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더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이 새롭고 큰 걸음을 위해 저와 충청남도가 가장 앞장서 뛸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강력한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주신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지방분권충남연대 대표님, 충남의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밀원수 으뜸 충남’ 건설 위해 지혜 모으자

2019. 9. 4.

임업과 양봉산업
공동 발전방안
토론회

충청남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 9월 4일 보령시에서 ‘임업과 양봉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양봉산업 관련 부처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 공유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사는 ‘꿀벌 산업은 충남’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각인되도록 벌꿀 채취용 밀원 숲 조성 확산을 선도해 산림산업의 가치를 더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밀원수 확대 조성을 통해 임업과 양봉산업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임업과 양봉산업의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밀원수 으뜸 충남’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임업인과 양봉 가족 여러분!
꿀벌산업은 양봉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매개 등 자연생태계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자원의 90% 이상을 100여 종의 농작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이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는데 70%에 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꿀벌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는 과수 · 과채류 등의 작물은 5조 원, 특용작물 · 원예종자 · 의약품은 9천억 원 등 총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따라서 양봉산업은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임업과 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벌꿀 채취용 밀원 숲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먼저, 벌꿀 채취용 나무인 밀원 수 조성 5개년('18년~'22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158억 원을 투입하여 헛개나무 등 벌꿀 채취용 밀원 수단지 2,579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 들어,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도유림에 아까시나무와 백합나무, 옻나무 등 35ha를 식재하여 대규모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만 밀원수 576ha를 심어 연간 계획량 536ha 대비 107%를 초과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저는 앞으로 "꿀벌 산업은 충남이다!"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각인시켜 나갈 것입니다. 밀원 숲 조성을 선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산림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 임업과 양봉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밀원수 으뜸 충남'건설을 거듭 다짐하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어항 만들자

2019. 10. 25.
(사)충남해양수산
총연합회 발대식

수산업 분야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가 2019년 10월 25일 출범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예산 충남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9개 해양수산 단체 임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진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총연합회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연합회, 충남어촌계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촌 활력 저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새 활로를 찾고 수산인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오늘은 충남 해양수산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날입니다. 도내 수산단체 9개가 하나로 힘을 모았습니다. 충남 해양수산의 더 큰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9개 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결단에 힘찬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새로운 출발이 2만여 해양수산가족의 힘을 모아 충남 해양수산의 미래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수산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연안지역에 세계인구의 50%가 거주합니다. 전세계 교역량의 78%가 바다를 통합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산업규모도 연간 37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미래가 있고 바다에 희망이 있고 바다에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연안 7개 시 · 군에 걸쳐 1,242km의 긴 해안선을 가진 충남에게 있어 해양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5일 대통령을 모시고 충남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을 보고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열어주는 가능성의 크기만큼 우리가 마주한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가 어촌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고령인구비율 14.8%(2018년 기준)에 비해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36.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수산업의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바다의 미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전통수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어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해양수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 · 어항을 만들겠습니다. 교통 · 의료 ·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에서도 아기들의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어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히 여성어업인의 인권과 지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르고 건강한 바다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해마다 1만 5천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 · 처리를 강화해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수산의 미래가 충남의 미래입니다. 수산업의 성공이 충남의 성공일 것입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민선 7기 충남호의 주인공입니다. 늘 함께 소통하고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저력을 믿고 더 발전된 수산업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농어업을 대한민국 핵심과제로 삼고 힘을 모아야 한다

2019. 11. 15.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충청남도는 2019년 11월 15일 도청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와 공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 · 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이 직접 농정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양 지사는 3농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중소 · 고령농 지원정책 및 농가소득 안정화 등 지속가능한 행복한 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한민국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새우기 위해 2019년 4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출범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농어업 · 농어촌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의제라는 인식과 함께 전국 9개 도를 돌며 현장의 농어업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경북, 전북, 경기에 이어 다섯 번째를 맞는 이 타운홀 미팅이 더 행복한 충청남도 농어업,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농어촌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이 타운홀 미팅의 주제는 바로 '농정 틀 전환'입니다. 우리 농어업은 지금 어려운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 등 험난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농어촌 인구수는 총 107만 가구, 243만여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7%만이 우리 농어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특히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8년 기준 농촌의 고령화율은 44.7%이며, 어촌의 고령화율은 3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로 우리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입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양극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19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 · 소농의 농가평균소득은 2,385만 원으로 청장년 · 중대농의 6,703만 원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살률도 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외적 여건 또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특정 품목의 수입 관세율 인하 등 우리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 그대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해 우리 농어업을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로 삼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충청남도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동안 농어업 · 농어촌 가치의 공감대 형성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3농정책'을 도정의 역점과제로 삼고 농어업인과 함께 관련 정책과 세부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 농어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상향식 협치농정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통해 지방정부 미래농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8년 농가소득이 4천 3백만 원을 상회하여 전국 4위의 성과를 거뒀고, 농림어업 생산액(GRDP)이 4조 5,328억 원으로 전국 1~3위권을 지속 유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충남농산물 대표브랜드(충남오감) 육성 등 유통혁신을 통해 안전 먹거리와 선순환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3농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중소 · 고령농 지원정책 및 농가소득 안정화 등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농정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또 뛰겠습니다. 특히, 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함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위해 2020년 충남농어민 수당을 도입하는 등 각 분야별로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반영해 주시고 대한민국 농정의 백년대계를 잘 설계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산림정책 미래는 곧 도민 삶의 질 향상

2019. 12. 10.

충청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
선포식

충청남도는 2019년 12월 10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7기 새롭게 수립한 '충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중장기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을 비전으로, 생활환경서비스 확대, 관광자원으로서의 산림가치 증진, 전통적 산림산업 기능강화 등을 추진하는 3대 목표로 짜여졌다. 6대 추진 전략은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한반도 산림녹화 등 산림정책 인프라 확충 등 10년간 나아갈 방향이 담겼다.

충청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산림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산림가족 여러분,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은 생명과 삶의 근원입니다. 나무와 식물이 모여 숲과 산을 만들고, 인류와 지구의 환경을 지킵니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 환경적 · 정신적 가치 또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산림 1ha는 연간 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을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원함량,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산림정수, 토사붕괴방지, 야생조수 보호 등 산



08.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하나가 주는 가치가 연간 약 7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18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약 6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임금과 선조들은 산림행정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6조 공전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산림입니다. 산림행정을 농사의 근본이자 백성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또 국민부양과 나라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여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산림의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의 시대, 기후변화의 시대입니다. 미래산업발전을 위해 자연친화적 행정은 더욱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산림행정의 가치와 역할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60%가 산림입니다. 충남의 49.7%가 바로 산입니다. 우리 면적의 절반인 산림을 빼놓고는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도 없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의 발전도 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이끌 비전으로 미래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성장동력 으로서 우리 산림과 산림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다짐합니다.
충청남도는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이라는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소득, 산림복지, 산림재해, 산림정책 등 6개 분야에서 18개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산림이 가진 산업적, 관광적, 환경적 가치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는 충남이 미래산업 으로서 산림정책의 비전을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임업은 충남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산림행정과 산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전과 계획이 잘 실행되면 이제 2028년에 전문임업인은 3,045명, 산림일자리는 1만 2천 명, 임산물 생산액은 3,845억 원, 산림 복지시설은 38개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한 중장기계획이 계획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충남의 새로운 도약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함께 하신 여러분,
충청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이 그리는 미래 충남의 모습은 사람, 지역, 자연이 공존하고 모든 도민이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입니다. 우리 충남이 넓고 긴 안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숲으로 그린 행복한 충남을 위해 도지사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 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9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도민이 함께 손잡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갑니다.
도민과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분단의 고통을 끊고 진정한 광복으로 나아가자

2018. 8. 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년 8월 1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이 열렸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2029년 3 · 1운동 100주년을 맞아 '3 · 1 평화운동 기념관(가칭)'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경축사에서 충남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3 · 1운동의 성지라고 강조하면서, 3 · 1평화운동의 기념비적 공간을 만들어 남북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이자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먼저 이를 경축하면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73년 전 우리가 맞은 광복은 현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36년,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피와 땀과 눈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봉오동에서 청산리에서 일제와 맞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홍커우 공원에서 추상과 같은 기개를 떨쳤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만주 벌판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광복을 향한 의지는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 독립자금으로 낸 지사가 있었고 쿠바의 알로에 농장에서 가시에 찔리며 번 임금을 모아 독립자금을 보낸 동포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781분의 순국선열과 6,809분의 애국지사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애국자였고 독립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국 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열들이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하고자 했던 조국 광복은 외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고 하나 된 민족의 안녕과 번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됐고 그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을 통해 번영은 얻었지만, 거기서 파생된 성장통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완전한 광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설 것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광복 이후 맞이한 분단의 고통은 너무 큽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는 남북을 포함해 군인만 300만 명에 이르고 민간인 피해는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는 이산가족의 고통은 이제 살아계신 68,000여 분의 실낱같은 희망을 되살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념 논쟁과 체제경쟁이 지속되면서 남북 간의 적대감과 이질감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단의 고통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긴장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진정한 의미의 광복,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이를 위해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해도와의 자매결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환황해포럼과 동아시아 3농포럼 등 한 · 중 · 일과 아시아 여러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는 지난해 말 35만 명으로 줄어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이면 3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충남의 고령화율은 이미 17.1%에 달하고 있고 공주와 보령 등 도내 10개 시 · 군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합니다. 인구 십만 명당 25.6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14년째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양극화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대한민국의 3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충남에서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염원했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광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와 동력을 우리 충남이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이념과 계급,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응답한 민족사적 단결의 상징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3 · 1운동의 성지입니다. 3 · 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우리 충남에서 3.1운동 그때의 감동과 민족적 단결을 다시금 되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가칭 3.1평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3 · 1운동과 같이 지역의 주인인 도민이 주체가 되어 3 · 1평화운동의 기념비적 공간을 만들도록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3 · 1평화운동 기념관을 국민적 단결과 실천의 구심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3 · 1평화운동의 정신은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 공동의 인식과 실천을 높이고,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동력을 220만 도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광복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발전의 원천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었고 이제 세계와 어깨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4 · 19와 5.18, 6월 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이러한 저력이 있기에 전쟁과 분단, 보릿고개와 독재, IMF 경제위기 등 현대사의 고비를 극복해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국난극복과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그 바탕에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명예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족의 얼이 서려 있는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선열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 그리고 국난극복의 저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광복,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대장정에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앞을 보고, 어깨 펴고 씩씩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임 100일, 민선 7기 주춧돌 놓다

2018. 10. 15.
취임 100일
언론인 간담회

"민선 7기 주춧돌을 놓았다." 양승조 지사는 2018년 10월 15일에 취임 100일 언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지사는 민선 7기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충남을 만들고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며,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3대 위기극복을 위해 집중투자와 선도모델을 구축,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소명의식으로 실천했다고 이야기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정에 보내주고 계신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8일은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지난 100일에 대한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도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 우리 도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100일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그것들을 극복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자연재해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취임식을 약식으로 치러야 할 만큼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은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고 들판도, 축사도, 가두리 양식장도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 가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대장정의 기초를 닦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충남도정 비전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란 3대 위기의 심화로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착화된 저성장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결하고 선순환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투자와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소명의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도정 비전인「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은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의 의지를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열어갈 민선 7기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실 · 국 · 원장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과 점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도정운영 동반자인 시장 · 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선 7기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책사업 도내 유치를 위한 국회 ·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이 열린 도정의 구현과 시 · 군과 함께 협력해 나갈 정책사업의 효과적 추진기반 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 · 경제구조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지-경제 선순환체계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전략 구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행정을 실천했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100일 동안 펼쳐온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이 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 가장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공부문과 시장 모두의 공동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❶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은 도지사 1호 결재사항 이었습니다. 10월 13일 현재, 2,137개소에 설치했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및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는 도지사 2호 결재사항이었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16개 기관 159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❷ 공약사항인 충남플러스 아기수당은 정부 아동수당과 병행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❸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은 2020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2019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전 학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어린이집의 경우 상반기 3,464대 지원에 이어 3,962대를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공기청청기는 도내 89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골고루 잘 사는 경제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남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6년 8.0%에서 2016년 3.9%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자영업 어려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활력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❶ 이를 위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예산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하는 등 경제구조적 소외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❷ 또한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와 종사자 거주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기업의 투자기반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촉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❸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지원센터를 내포에 유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되는 것으로 충남에서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건립 예정이며, 2030년까지 매출 9,223억 원, 고용창출 768명의 경제적파급 효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❹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가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어 2021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구 · 지원기관과 중소 · 벤처기업들을 집적,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분야의 싱크탱크로 육성 계획입니다. ❺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차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타 진행 중으로 천안지역에 구축이 확정적입니다. 천안시 직산읍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사업비 5,281억 원을 투입, OLED, 플렉서블 등 핵심기술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경우,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충남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❻ 그런가 하면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상생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육성에 주력하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성장지원을 위한 100억 원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등 대응전략 논의를 통해 4대전략 · 12개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정부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❽ 국가정책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20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6개 시 · 군 선정, 대체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내포 건립' 확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세 번째,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자산인 자연, 산업, 인적자원 등을 활용,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❶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 원에 달합니다. 밀원수 조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산림청에 제안하는 등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전략과제를 구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❷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 산업유휴자원 국가성장동력과제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우리 도에서는 1,546명의 일자리가, 전국 확산 시에는 3만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문의료 수가 책정을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방문의료시장 창출 및 지역센터 구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320개 센터에 4,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0일 동안 우리 도가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 모두는 언론인 여러분이 성원해주시고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심으로써 만들어주신 값진 성과물들입니다. 저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과제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시켰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며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당성 확보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홍문표 의원, 대전시와 공조하여 국회토론회를 개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려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정책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실시된 이후 지역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인구 9만 6천명이 감소하였고 면적은 399.6㎢, 지역총생산은 1조7,994억 원이 감소하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금년 말까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우리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불균형문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이 생활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 · 군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민선 7기 도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본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의 육성과 정착을 지원하여 자본과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인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도와 공조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개편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생활SOC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주민 삶과 밀접한 여가 · 문화 · 주거 · 건강 · 안전 등 분야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더 행복한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화(2019. 1.)하고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 내 가칭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위기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9월, 민선 7기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사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수도권기업 국비지원 확대 등 8대 시책을 마련하였고 우량 외투기업 40개社 유치 목표 설정과 외국인투자지역 2개소를 지정 추진하는 등 외투기업 입지지원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도는 157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6,407억 원의 건설효과(단발효과)와, 2,385명의 고용 효과 창출로 이어졌으며, 110만 8천㎡의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외투 기업 또한, 현재 10개사와 유치를 위한 협의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국내 22개 신성장기업과 투자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개 시 · 군 57만㎡에 5,485억 원의 투자, 1,003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2개사, 프랑스 1개사, 중국 2개사 등 외투기업 5개사와의 투자협약 체결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주력산업이 질적 · 양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관 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외부로부터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함께 내부에서 창출된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남 지역총생산 117조의 23.2% 해당하는 27조 원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매년 유출 되고 있습니다.
기업 R&D, 강소기업 본사 유치 등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 소비촉진과 근로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약이행 및 도정비전 실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정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조직재설계와 재정운용 등 안정적 도정추진 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❶ 이를 위해 조직의 재설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선 7기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왔습니다. 저출산대책, 자영업 정책 총괄, 미래전략 수립 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설계안에 대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원과 도민의 이해를 더 높이는 과정을 거쳐, 2019년 시행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❷ 2019년 정부예산 확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2019년 정부예산 반영액은 6조 842억 원으로 현재, 국회 심의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액인 6조 3,000억과 대비하여 2,158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지사 선거공약 및 도정비전은 국정과 연동되어 추진되게 되고 보육정책, 주민생활인프라에도 정부 재정의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10월 말부터 국회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해가겠습니다. ❸ 민선 7기 2년차 재정운용 기반(2019년 예산 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핵심가치인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3대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투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정규모 확대가 도민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❹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한 이행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수립 추

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9.14.)와, 도민배심원제 운영(9. 29. ~), 공약실천계획 확정(연말)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도지사 100일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100일은 민의를 대변하던 입법부의 국회의원에서 민의를 직접 실현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군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영혼에 새겨진 100일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곰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100일은 완성과 완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0일이 민선 7기 충청남도와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남도정이, 온전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성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만들자

2019. 3. 1.
제100주년
3.1절 기념사

양승조 지사는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양 지사는 3 · 1운동 정신의 진정한 완성은 남북의 완전한 통일에 있다며, 반목과 대결의 현대사를 거슬러 화합과 일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3대 위기 극복을 통해 다진 국민 통합과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제공조의 큰 틀을 염두하며 실질적인 남북교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3 · 1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이고 민족사의 기념비적인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먼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함께하고 계신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일제의 총칼에 맞섰습니다. 남녀노소, 이념과 계급,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전개된 만세운동은 민족정신을 일깨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단초가 되었으며 그리고는 마침내 조국 광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이는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 주는 일이었고 이후, 해방된 한민족 자존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내하여야 했던 고통과 수난은 너무나 컸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36년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103만 명에서 최대 776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역시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민족적 자부심과 민족정신에 대한 훼손은 그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3 · 1운동의 참화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542회의 의거 속에서 7,509명이 사망하였고 15,961명이 다쳤으며, 46,948명이 투옥되는 등 전국적으로 죽고 다치거나 옥고를 당한 선열이 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충청에서만 590명이 목숨을 잃었고, 1,116명이 몸을 다쳤으며, 5,233명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저는 선열들의 고통을 기록한 이 숫자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이 고통을 끊어내기 위하여 100년 전 오늘, 민족자존의 불씨를 살려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민족의 통합과 번영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책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발전과 퇴보는 그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2018년도 원조예산이 3조 482억 원에 이르는 원조대국, 5년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 전 세계인들이 K-POP을 즐겨듣고 한국 영화, 드라마를 즐겨보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 앞에서 그 토대를 구축해주신 선열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담대한 시작을 하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3 · 1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3 · 1 운동과 독립투쟁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부터 민족정신을 정립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가칭 '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은 이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자 상징이 될 것입니다. 3.1만세운동과 같이 지역의 주인인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교육관과 ICT체험관 등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념비적 공간을 조성해 국민적 단결의 구심점으로 삼겠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6일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등급이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독립유공자와 애국선열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만세운동 릴레이, 무궁화공원 조성 등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기념사업을 통해 3 · 1운동의 정신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국민적 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힘겹게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2017년에는 357,000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2018년은 327,000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에서 더 떨어져 0.9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발표는 이것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018년 12월 기준 14.8%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고령화율은 17.5%에 달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키우는 양극화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4분기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23만 8,200원으로 2017년보다 17.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20% 가구소득은 932만 4,300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적 차이가 사람의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미 여러 차례 이 시대가 저에게 맡긴 역사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자 각오입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목표, 2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 아기수당' 지급이 시작되었습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통해 교육 평등권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전 시 · 군에 걸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곧 지원할 계획이고, 새일여성인턴 사업 등 소외분야 지원 대책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힘겨운 서민들의 삶을 따뜻이 보듬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통합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3 · 1운동 정신의 진정한 완성은 남북의 완전한 통일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현대사의 질곡이 바로 남북 분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목과 대결의 현대사를 거슬러 화합과 일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바로 어제와 그제인 27일과 28일 북한과 미국은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노이 선언'을 통해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리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난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멀리 보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의 여망이 든든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3대 위기 극복을 통해 다진 국민 통합과 단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 층 더 진전된 통일을 향한 여정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제공조의 큰 틀을 염두하며 실질적인 남북교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별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제는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지금도 당장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대북제재의 완화 정도에 따라 더 실질적인 중장기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태안반도와 인천을 거쳐 해주를 잇는 스마트 하이웨이, 중국과 황해도, 충남의 대산항을 연결하는 서해안 뱃길 관광자원 등 환황해권 개발도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들을 언제든 실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선열들의 얼이 숨 쉬는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다부진 각오와 결의로 다짐하고 기원합니다. 도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사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 예술 · 체육을 접하여 여유와 활기를 되찾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롭고 쾌적한 삶터,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15개 각 시 · 군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지역 맞춤형 발전정책을 추진함과 함께, 육지와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바다, 하늘을 아우르는 입체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도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혁신 도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선열들이시여!
가혹한 일제의 폭압 앞에서도 당당히 맞섰던 기개와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단결된 힘으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소서.
3.1만세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삼가 선열들께 기원합니다.

독립운동의 마음으로 사회 위기를 극복하자

2019. 6. 6.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충청남도는 2019년 6월 6일 내포신도시 충남보훈공원에서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명예를 드높여 나아가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의무라며 도에서는 국가 유공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앞장서서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저는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기념일이 경축의 의미를 지닌 것과는 달리 오늘은 애도와 추모의 정을 나누는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보훈대상자분들은 본인 616,827명, 유가족 228,433명 등 총 845,2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만 해도 본인 25,432명과 유가족 8,062명 등 총 33,494명이 그 대상자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일 의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풍찬노숙의 길을 걸으신 독립운동가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과 전장의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용사들, 이역만리 월남에서 세계평화와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 민주화 재단에 몸을 던지신 열사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바로 이분들의 희생 위에서 꽃핀 것임을 생각할 때, 저는 가슴이 숙연해짐과 함께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고 그 명예를 드높여 나가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의무이자 도리를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업적과 그 숭고한 정신을 온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전히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119구급차 이동 서비스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와 도내 각종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 주차료 면제와 감면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 보훈공원에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거리를 조성하고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추념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화이자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무궁화를 보훈공원 일대에 심어 무궁화동산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뜻과 염원을 한데 모아 3.1평화운동 백년의 집을 건립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봉길 창작뮤지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 면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또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눈에 보이는 위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는 보이지 않는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크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회 양극화의 위기, 고령화의 위기, 그리고 저출산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심각성이 어떠한지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전장에 나서는 용사들의 심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저와 우리 충청남도가 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키우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홀로 두지 않으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저는 그것만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 보훈공원에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고귀한 가치의 선양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열어갈 미래 희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 하나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성심을 다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하고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난 1년,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새로운 도전

2019. 6. 27.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양승조 지사는 2019년 6월 27일 충청남도청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도정 방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실현을 위해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3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는 7월 1일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충남도정이 걸어온 소회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어갈 2년 차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먼저 지난 1년간 우리 충남도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년은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도정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흐트러진 도정을 정비하고 태풍과 가뭄으로 이어지는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면서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대장정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난 1년간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를 위한 민선 7기 도정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착화된 저성장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결하고 선순환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충남남도의 도정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은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도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정비전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민배심원제도 운영과 시 · 군 정책현장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11대 분야 116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현재, 충남 아기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 급식 등 2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9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의 미래전략 수립 및 균형발전 촉진 등의 핵심기능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셋째,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확대해 왔습니다.
도민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갔고 청취하였으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정비전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 · 군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도정의 방향성과 주요 이슈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정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입법부 간의 협업과 소통의 강화를 통해 주요정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상 최대 6조 3,863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 등의 성과 또한 국회의원, 주요부처 장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펼쳐온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이 보다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이룩한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향한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2,77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대금리 통장 개발 등 임산부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을 개원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898개 학교, 1만 7천 학급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전국 최초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자살취약군 1:1 멘토링 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경로당, 노인대학의 운영활성화도 꾀해왔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 강화를 통해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지난 5월에는 도민안전보험도 시행하였습니다. 도서 · 산간 취약지역의 교통 ·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관점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유관순 열사 서훈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하였고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예방과 해소를 위해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3대 위기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기업유치에 관심을 기울여 국내기업 707개사 4조 1,034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15,589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외투기업인 프랑스 토탈社, 미국 에어프로덕츠社 등 8개사 대상 6억 6,4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하여 2,17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완화를 통한 지원 확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청년맞춤형 일자리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기준 충남 고용률은 65.1%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1분기 기준 충남 청년 고용률은 4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안전종합대책 수립, 노사민정 공동선언 등 노동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위한 미래발전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 산업생태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식하기 위해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꾸준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9~2025년 동안 5,281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부품기업의 기술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를 유치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탄소자원화기술 실증사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을 가꾸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지역스포츠인프라 확충, 차별 없는 체육활동 지원 등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인프라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민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고 문화예술 분야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전,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세부계획 실행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어 왔습니다.
국내 최초 기후변화 세계도시연맹 가입과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 등을 통해 글로벌네크워크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충남 대기환경개선계획 본격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가꾸어 왔습니다.
지하수 총량관리제와 깨끗한 연안 · 해양환경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덟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농가소득과 농림어업 생산액(GRDP)의 증대를 통해 충남형 농업정책 성과에 대한 가시화를 이루고 민선 7기 매출액 6,702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농산물 유통을 확대하였으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며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출범시키고 공익형 직불금을 확대해 왔습니다. 농업 · 농촌 자생력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발전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구축,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추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귀어혁신모델 마련, 어촌 뉴딜 300사업, 임업 중장기발전전략, 산림 일자리 마련 등 해양과 산림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발굴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면제, 고남~창기 국도 확장 예타 면제,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등을 통해 입체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내 균형발전 사업은 제1단계 사업(2008~2020)의 내실화와 제2단계 사업(2021~2030)의 추진기반 조성을 이루었습니다. 권역별 발전전략과 도시재생뉴딜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도가 이룩한 여러 성과에 대하여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폭은 더욱 넓히고 깊이는 더욱 다지면서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해결 여부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기존 시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한편,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소규모사업장 연합어린이집 건립으로 출산 및 보육 친화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과 서울학사 건립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충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9예약제, 생명사랑자살예방 내실화를 이루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극화로부터 고통을 받는 소외 ·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화하기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 · 운영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운영하는 한편, 충남노동권익센터, 여성가족프라자 등 취약계층 권익보호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미래발전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대국 대한민국, 환황해의 중심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바이오 · 치유 · 레저 · 생태복원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인큐베이팅을 육성하고 해양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며 해양바이오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해양생태도시 조성하여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을 세계적인 해양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금 · 머드 · 갯벌 · 해송 등 다양한 해양자원으로 건강과 치료, 관광을 함께 제공하는 치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 서해안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해수욕 중심에서 섬 · 연안크루즈, 마리나, 어촌민속마을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을 포함한 각종 과학기술 발전 및 세계화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미래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첨단미래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드론 · 로봇 · 스마트팜 · 스마트팩토리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소경제시대를 맞아 수소에너지벨트를 조성하고 제약의료분야의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는 파마바이오틱스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발전하는 농림어업,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위해서는 쇠퇴하고 있는 전통적 형태의 농림어업을 21세기형으로 혁신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역농산물 물류허브이자 중소 · 고령농의 안정적 판로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부가가치 원예 · 화훼산업 육성으로 기존 쌀 중심 농작물구조를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충남형 밀원수타운 조성을 통한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직거래 확대 등 유통혁신으로 어가 소득 및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뱀장어 및 슈퍼황복 등 지역명품수산물의 대량생산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역내 고용 · 노동서비스를 통합하고 제공하는 일자리진흥원을 설립 · 운영하며 충남형 상생일자리모델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 · 문화 복지를 통한 윤택한 삶이 영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문화'는 도민의 기본권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물 부족 등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령 1 · 2호기 등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추진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오염 우심지역 총량관리제 실시로 체계적인 대기환경의 관리를 강화하며 전 지구의 숙제인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담수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이루고 항구적 가뭄 극복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생활과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여가와 문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논산돈암서원, 서천유부도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등 지역의 소중한 역사 · 문화 · 자연을 국제 명소화하는 한편 관광산업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남관광재단을 설립 ·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1운동정신을 되새기는 윤봉길뮤지컬공연, 3.1평화운동백년의집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도가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숙원 사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KBS 충남 방송국 설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현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난 도지사 1년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슴 떨리는 설렘을 안겨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다가섰고 해결을 위한 지혜와 열정을 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선출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22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성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민선 7기 2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충남도정이, 온전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본의 경제도발을 우리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 삼자

2019. 8. 13.

일본정부 경제보복 조치 규탄 충남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양승조 지사가 일본의 경제도발을 충남과 대한민국의 경제생태계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일본정부 경제보복 조치 규탄 충남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에 참석한 양 지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도발에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지사는 우리가 힘을 합쳐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민과 기업피해가 없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남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올바른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항일과 독립운동의 본향 우리 충남에서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힘찬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에 대응하여 220만 충남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바입니다. 당분간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강력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단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기업지원, 산업대책, 예산 · 세정 지원 등 여섯 개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핵심소재와 부품, 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기해왜란(己亥倭亂) 발발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마주하여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던 선열들의 위대한 기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정부는 원칙을 지켜라', '우리가 치졸한 일본에 맞서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대응을 보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충남도민과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무도한 일본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하여 도민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일본의 경제도발을 지속가능한 충남, 대한민국의 산업혁신과 경제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결연히 대응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환황해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혜 모으자

2019. 10. 31.
제5회 환황해포럼

양승조 충남지사는 2019년 10월 31일 한 · 중 · 일 · 몽골 등 환황해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 · 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포럼' 개회식에서 기후, 환경, 사회, 경제 등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5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먼저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고장, 충남을 찾아주신 국내외 전문가와 참가자 여러분 모두를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은 "환황해(環黃海),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하여 열리는 다섯 번째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환황해 권역이 세계 경제와 외교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위치는 매우 큽니다. 이미 환황해권의 한 ·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제5회 환황해포럼
5th Pan-Yellow Sea Forum
초청 연사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중 · 일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20%, 총생산의 25%, 세계 교역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 중의 하나로서 환황해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황해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외교 ·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세기 냉전의 유산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환황해 지역의 역내질서는 복잡하기만 하고, 함께 풀어야 할 도전과제는 쌓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던 한반도 평화지평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다자무역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안한 경제와 안보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 극복, 환경과 보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질서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과제에 대해서도 지역차원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환황해포럼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황해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서 지역 간의 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포럼은 환황해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동인식과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5년간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꾸준히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 제5회 환황해포럼을 맞이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과 직결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환황해의 평화이며, 이것이 한반도와 환황해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1경 4,451조 원에 달합니다. 통일비용 4,657조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국내뿐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남한의 생활수준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한국의 경제가 2030년대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분단이 통일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황해 지역 간의 공동논의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두 번째는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입니다.
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 즉 저출산 · 고령화 · 사회양극화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3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번영과 공생의 지혜를 나누길 희망합니다.
현재 황해권 3국은 저출산 · 고령화, 그리고 환경문제라는 공통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70년 100만 명이 넘던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말 32만 6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은 0.98명으로 떨어졌고, 고령화율은 15.3%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또한,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우리 충남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해수오염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 중 · 일 3국이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이 도전을 극복해냅시다.

세계평화와 번영, 이곳 환황해시대에서부터 출발시킵시다.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더 견고하게 준비할 것

2019. 12. 26.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정부회의

2019년 12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정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2년차 시 · 군 방문에서 수렴한 도민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만들어 도와 시 · 군이 정책협약까지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2019년이 도정의 토대를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여전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래를 더 견고하게 준비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시장 · 군수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곳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민 여러분을 첫 자리에 모시고, 열린 지방정부회의라는 소중한 자리를 통해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다짐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도정의 주인이신 220만 도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도민들이 계셨기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정부회의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회의로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 민선 7기 2년차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우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리 충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던 민선 7기 2년차 시 · 군 방문을 마무리하며 그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둘째, 도민 여러분 앞에서 시장 · 군수님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힘찬 실행을 확고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정의 현재와 미래를 뒷받침할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킬 새로운 충남의 상징을 기쁨과 환희 속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과 선포가 미래 충남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손잡고 쉼 없이 달려온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하며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온 참으로 뜻깊은 2019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충청남도는 정부예산 확보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민 행복을 뒷받침할 단단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는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이 하는 일이면 전국적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전국경제투어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1천억 신규투자와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견인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계의 지원 의지를 끌어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잇단 태풍,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들 당당히 이겨냈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09.
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가 도정의 기틀을 세웠다면 금년 2019년은 충남도정의 토대를 다진 한 해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뛰어온 우리였습니다.
행복키움수당과 3대 무상교육은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정책을 선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30,174분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전국 최초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과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 장애인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꽃피우고 있고, 국내외 기업유치와 행복한 노동환경 조성,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3대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또한 위태롭습니다. 정치외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중반부를 맞아 지금까지의 노력과 첫 열매들이 더욱 크고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가오는 새해에도 3대 위기에 맞서 도민 행복과 미래성장 전략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를 더욱 심화 ·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견고히 준비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장기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도정의 주인이신 도민 여러분께서 경자년 새해에도 함께 손잡고 힘차게 충남도정을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시장 · 군수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늘 처음처럼 변함없이 도민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연설문집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충청남도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120
www.chungnam.go.kr

디자인 • 제작 (주)디자인시티 041-633-6516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